



태권도 심판 좌담회

경기를 심판하는 사람은
규칙에 따라 엄정하게 다스리고
경기를 명랑하게
이끈다.

체육인 현장에서

▲일 시 : 2월26일 (금)오전11시

▲장 소 : 향진

▲참석자 명단 :

권경옥 (기술심의회 의장)
안영택 (심판분과 위원장)
조호철 (심판분과 부위원장)
장창영 (심판분과 위원)
김장일 (심판분과 위원)
이종찬 (심판분과 위원)
한상진 (심판분과 위원)
강희택 (심 판)
장명수 (심 판)

▲사회 : 한규인 (본회 홍보실장)





태권도의 국내외적인 발달
속에서 우리가 시급히
정착시켜야 할 문제는
경기장의 명량하고 활기찬
풍토조성으로 태권도
경기의 활성화를 꾀해야
한다고 봅니다.

●사 회 : 올해는 '88서울을
림픽에 태권도가 시범경기로 채
택되어 태권도 발전의 새로운 이
정표를 제시하게 될 중요한 시점
에 놓여 있습니다. 태권도가 세
계인의 대제전에 들어간 것은 태
권도의 종주국으로서 태권도인
모두가 태권도의 세계적인 보급
과 합리적인 경기규정, 기술의
발달을 꾀해온 결과였다고 봅니
다.

태권도의 국내외적인 발달 속

에세 우리가 시급히 정착시켜야
할 문제는 경기장의 명량하고 활
기찬 풍토조성으로 태권도 경기
의 활성화를 꾀해야 한다고 봅니
다.

건전한 경기장 풍토조성은 선
수와 관중과 코치, 심판 모두가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
는 데 그 조화를 이룬다고 봅니다.

오늘은 심판여러분들을 모시
고 태권도 경기의 건전한 발전과
활기찬 경기장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심판의 공명정대한 판정
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재인식하
면서 어떻게 하면 심판이 심판의
권위를 찾고 심판에 대한 기존의
불신을 불식시킬 수 있는가 하는
방안을 본회 기술심의회 의장을
모시고 자리를 마련해 보는 시간
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권 경욱 / 기술심의회 의장

지금 이 자리는 올 한 해를
신뢰받는 심판상을
정립하겠다는 여러분의
각오와 신념을 여러
태권도인에게 천명하며
이를 위해 자기점점의
시간을 마련해 본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권경욱 의장 : 심판 여러분
들께서는 지난 2월에 개최된 남
녀국가대표 선발전을 통해 그동
안 고질적으로 지적되어온 불공
정 심판에 대한 불명예를 불식시
키는 전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올해는 서울올림픽에 태권도
가 시범종목으로 채택됨에 따라
앞으로 태권도가 정식종목으로

채택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중요한 시점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태권도 선수들은 최선의 기량과 예의범절로 종주국 대표선수의 표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함은 물론, 관중들은 갈채와 성원으로 선수들을 격려하여 질서있는 경기장을 만드는데 일익을 담당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는 올 한 해를 신뢰받는 심판상을 정립하겠다는 여러분의 각오와 신념을 여러 태권도인에게 천명하며 이를 위해 자기점점의 시간을 마련해 본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 영택 / 심판분과위원장

●안영택 위원장:심판 여러분들께서는 공명정대한 판정으로 심판으로서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애로사항을 겪어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심판의 불공정한 판정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심판분과위원장

저는
심판분과위원장으로서
년초에 심판부의
정화추진을 위해서
심판원을 보호하는 입장이
아니라 심판원을 냉정하게
관리, 판별해 심판의
불신을 완전히
씻어내겠다는 입장을
여러분들께 밝힌 바
있습니다.

으로서 년초에 심판부의 정화추진을 위해서 심판원을 보호하는 입장이 아니라 심판원을 냉정하게 관리, 판별해 심판의 불신을 완전히 씻어내겠다는 입장을 여러분들께 밝힌바있습니다.

●사 회:심판은 협회의 얼굴입니다. 심판이 공명정대한 판정을 내리면 경기장 질서는 회복되어갈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심판의 권위를 가꾸는 일을 담당해야 할 여러분들이 판정에 있어서의 애로사항은 무엇이었으며, 앞으로 무엇이 시정되어야 할 것인지 많은 의견을 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종찬 / 심 판

심판은 3분 3회전을 뛰는 선수들의 동작 하나하나에 정신을 집중해야 하는데 경기장에 운영요원 외에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는 행위등은 모두 공정한 심판을 방해하는 요인이 됩니다.

●이종찬 심판:저는 우선 경기장 분위기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경기장 분위기가 어수선했다면 관청에도 당연히 어려움이 따릅니다. 심판은 3분 3회전을 뛰는 선수들의 동작 하나하나에 정신을 집중해야 하는데 경기장의 어수선했던 분위기, 코치나 감독 등의 무절제한 항의, 경기장에 운영요원의외에 사람들이 왔다갔다하는 행위등은 모두 공정한 심판을 방해하는 요인이 됩니다.

●안영택 위원장:태권도는 단일종목으로는 가장 많은 선수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경기가 펼쳐져 경기때가 되면 오전 9시부터 시작해 오후 6시까지 경기가 진행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보통 오후가 되면 심판들은 심한 피로감으로 판정상 혼미함을 느끼는 경우도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경기일자를 하루쯤 더 연장하더라도 하루의 경기시간을 5~6시간 정도로 적정하게 줄이거나 심판의 2교대를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권경욱 의장:하루의 경기시간을 적정하게 단축하면 심판은 물론 선수들이 기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운영비도

**경기일정을 하루쯤 더
연장하더라도 하루의
경기시간을 5~6시간
정도로 적정하게 줄이거나
심판의 2교대를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을 채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합리적인 방안을 생각해 보아야 하겠읍니다.

●사 회 : 판정의 시비에 불씨를 안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경기진행시 득점이 발생했을 때 부심4명이 채점을 하게 되는데 보통 득점 발생 즉시 채점을 하는 경우 득점을 인정하는 부심과 그렇지 않은 부심이 있습니다. 물론 부심의 위치에 따라 보는 각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똑같이 득점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겁니다. 이럴 경우 코치석에서는 예민하게 부심의 채점표에 눈이 가게 마련인데 부심 중 누구는 점수를 주고 누구는 주지 않는 경우 그팀의 코치는 자신의 선수에게 유리하게 판정이 내려지지 않을 경우 그 심판의 판정에 불만을 표출하기 쉽습니다.

심판여러분들은 득점 발생시 채점을 바로 하느냐 아니면 매회전이 끝난 뒤 하느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경옥 의장 : 득점의 발생시 채점을 즉시 하느냐 매회전 종료후 하느냐하는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심판이 얼마나

공정하게 채점을 하느냐 하는 문제만 정립되어 있다면 아무 문제도 없을 것입니다. 심판이 주심과 부심 4명, 배심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자신의 위치에서 올바른 판정을 내리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같은 공격이라도 위치에 따라 심판판정은 다른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만 심판도 기계가 아니라 인간인 이상 판정의 기준상 약간의 편차는 있다고 봅니다. 즉 그것이 심판각자의 개성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야구시합 때 어느 심판은 어느 각도까지는 볼로 인정하거나 스트라이크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미세한 차이에 대해서 관중들은 "저심판이 심판을 잘못 본다"라는 비판보다는 "저 정도면 저 심판은 볼로 인정 하더라"라는 쪽으로 그 심판의 개성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태권도는 특히 투기종목이라 공격의 강도에 있어 심판의 개성이 나타날 소지가 더 많다고 봅니다. 심판들이 자신의 권위를 살려 판정을 정당하게 행사한다면 약간의 편차는 심판의 개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히려 득점발생시 그때 그때 득점을 주게되면 경기가 득점에 너무 인색해 활성화되지 못한다는 지적도 불식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본회 심판분과위원회의 규정을 보면 주심은 코치가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하는 경우 경고를 줄 수 있고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심하게 하는 경우 감점선

득점의 발생시 채점을 즉시 하느냐 매회전 종료후 하느냐하는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심판이 얼마나 공정하게 채점을 하느냐 하는 문제만 정립되어 있다면 아무 문제도 없을 것입니다.

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심판들 자신이 이러한 권한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도 심판 스스로의 권한을 축소시키고 있는 것이라 봅니다.



장창영 / 심 판

소청제도는 판정에 있어서의 오판여부만을 점수차이로 확인해줄 뿐, 코치나 감독의 비합리적인 항의나 소란에 대해 징계조치를 내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코치나 감독에 의한 소란은 늘 근절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고 봅니다.

●장창영심판 : 주심이 경고나 감점으로 제제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 문제의 해결을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경기 판정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합법적인 소청위원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풍토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소청제도는 판정에 있어서의 오판 여부만을 점수차이로 확인해줄 뿐, 코치나 감독의 비합리적인 항의나 소란에 대해 징계조치를 내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코치나 감독에 의한 소란은 늘 근절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고 봅니다. 집행부는 경기진행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게임몰수나 코치임무의 정지 등 강력한 조치로 경기장에서의 불필요한 소란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한 상진 / 심 판

**심판을 협회내
심판분과위원회에서
상임심판제를 도입, 그
임무를 수행하도록 한다면
심판원들도 더욱 더 소신껏
일할 수 있어 문제의
시비를 줄일 수 있으리라
봅니다.**

●한상진 심판: 태권도심판을 법정에 비유하자면 판검사로 비

유될 것입니다. 판검사의 판정을 받듯이 경기인들이 판정에 복종하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심판이 오판을 내렸을 경우 그때는 항소를 하듯이 소청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태권도는 무도인이라는 카테고리의 특수 관계로 심판 판정에 있어 코치나 감독, 선후배라는 보이지 않는 끈에 묶이는 경우도 없지 않아 압박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심판을 협회내 심판분과위원회에서 상임심판제를 도입, 그 임무를 수행하도록 한다면 심판원들도 더욱 더 소신껏 일할 수 있어 문제의 시비를 줄일 수 있리라 봅니다.



장 명수 / 심 판

●장명수 심판: 매일 경기가 끝난 후에는 심판과 위원장, 의장단 등 집행부가 하루의 일과를 점검해 보면서 심판의 오판이나 코치 또는 감독, 선수의 경기장 질서 위반사항에 대해 상벌을 강화해 다음날의 경기를 명랑하게 이끌 수 있도록 하는것도 방법이 되겠지요.



조 호철 / 심판분과부위원장

**경기 때마다 정당한 판정을
내리고도 심판관을 불신할
때면 이보다도 더한
인권침해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비참함을 느낍니다.**

●조호철 부위원장: 우리 심판들은 공정하게 판정을 내리고 있다고 봅니다. 경기 때마다 정당한 판정을 내리고도 심판원을 불신할 때면 이보다도 더한 인권침해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비참함을 느낍니다. 심판의 오판으로 제재를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코치나 감독의 일방적인 어필로 심판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릴 때 이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강력한 의지 표명으로 그러한 일이 계속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김장일 심판: 경기장에는 선수와 코치, 심판, 운영위원회에는 다닐 수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코치나 감독이 경기중 심판석에 와서 이야기를 주고 받는 다다가 하는 일이 없도록 코치나 감독석을 따로 만드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 장 일 / 심 판

코치나 감독은 자기팀 선수들과 함께 있으면서 시합을 대비하고 선수들의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는 것이 경기장에서 할 일이라고 봅니다.

●강희택 심판: 코치석은 따로 있습니다. 그러나 코치석이 있을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코치나 감독은 자기팀 선수들과 함께 있으면서 시합을 대비하고 선수들의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는 것이 경기장에서 할 일이라고 봅니다.



강 희 택 / 심 판

●이종찬 심판: 코치나 선수는 심판경기 규정을 잘 알아야 한다고 봅니다. 경기시에 우세한

선수들이 기량만을 쌓을 것이 아니라 경기 규정을 잘 알아 붙이이익이 초래하지 않도록 규정을 잘 지켜야 할 것입니다.

경기를 펼치다가 감점이나 경고 등으로 졌을 때 대개 판정시비를 물고 읍니다. 선수들이 기량만을 쌓을것이 아니라 경기 규정을 잘 알아 붙이이익이 초래하지 않도록 규정을 잘 지켜야 할 것입니다.

●장명수 심판: 이를 위해서는 각종 대회에 코치로 나오는 사람들은 당해년도에 보수교육을 받은 사람에 한해 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심판 규정이 쉽사리 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선 코치들도 태권도 수련 시절의 규정에서 벗어 나지 못한 경우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판정에 있어 배심 주·부심 등 6명의 태권도 전문가가 내리는 판정에 대해 불신한다면 더 무엇을 믿고 경기에 임할 수 있겠습니까 심판 판정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린 것도 심판에게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선수나 코치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재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각종 대회에 코치로 나오는 사람들은 당해년도에 보수교육을 받은 사람에 한해 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조호철 부위원장: 심판의 판정에 대해 우선 믿고 복종하는

심판의 판정에 대해 우선 믿고 복종하는 가운데 경기장 질서를 회복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가운데 경기장 질서를 회복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심판은 양심에 거리낌 없이 공명정대하고 엄정중립을 지키며 심판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권경옥 의장: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판정시비 또는 심판 불신에 대하여 본의든 본의가 아니든 심판원들도 책임을 지고 명예회복이나 권위를 위하여 인내와 반성하는 자세로 노력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를 중심으로 심판과 감독 또는 코치와 선수 그리고 관중이 혼연일체가 되어 태권도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회: 올해는 '88서울올림픽 관계로 소년체전과 전국체전이 통합경기로 치루어 집니다. 그 어느 해보다도 지역간의 경쟁이 과열될 것은 뻔한 일입니다. 과열경쟁이 심화될수록 판정시비는 더욱 더 많아질 것입니다. 이에 심판 여러분들은 규율과 질서속에 각지에서 모인 선수들이 평소애 닦은 기량을 유감없이 발휘하는 가운데 화합과 전진을 다지는 대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세계인의 관심이 총집중되어 있는 '88서울올림픽을 훌륭하게 치루어 태권도의 발전에 역사적인 전기를 마련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제16대 대한태권도협회 신임 집행부 구성



대한태권도협회는 1월 14일 올림픽회관 1층 중회의실에서 '93년도 정기대의원 총회를 열고 현 최세창회장(59세, 전 국방부장관)을 임기 4년의 16대 회장으로 선출했으며 조영기·송봉섭 감사를 유임시켰다.

최세창회장은 태권도 5단의 고단자로 지난 '91년 1월 17일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사의를 표명한 김운용 IOC 부위원장의 후임으로 15대 회장에 선출되어 지난 2년간 태권도의 생활체육으로서의 확산 보급, 제25회 바르셀로나 올림픽대회 및 제10회 세계태권도 선수권대회 등 각종 국제대회에 대표팀을 파견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둬으로써 국위를 선양한 것을 비롯, '94히로시마 아시안게임 정식종목 채택, 국방부장관기대회 창설 등 국내외적으로 태권도 발전에 이바지해 왔다.

최세창회장은 대의원 총회에서 위임한바에 따라 태권도계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신임 집행부를 구성하였다.

앞으로 4년간 태권도계를 이끌어갈 신임 집행부에는 새로 12명의 이사가 영입되고 홍종수 상임부회장 및 강원식 전무이사 등 16명이 유임되었다.



최세창 회장

생년월일 : 1934. 4. 17

학 력 : 육군사관학교(13기), 육군대학, 국방대학원, 한양대 행정대학원 졸업

경 력 : 합참의장, 육군대장 예편, 대한광업진흥공사 사장, 국방부 장관

포 상 : 4등보국훈장, 총무부공훈장, 보국훈장 천수장, 보국훈장 국선장, 보국훈장 통일장, 보국훈장 광학장
태권도 5단



홍종수 상임부회장

생년월일 : 1930. 7. 12

학 력 : 단국대사학과 수료, 연세대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경 력 : 대한태권도협회 이사, 전무이사, 기술심의회의장, 세계태권도연맹 집행위원, 국기원 부원장, (사)청소년선도회 고문이사(현재)
태권도 9단



정진규 부회장

현 직 : 경남경찰청장

생년월일 : 1937. 6. 11

학 력 : 건국대 대학원 행정학과 졸업, 국방대학원 수료

경 력 : 경찰종합학교 교수부장, 서울시경 제5부장, 강원도경찰청장, 경찰청 기획관리관



김종식 부회장

현 직 : 국군체육부대장

생년월일 : 1944. 6. 17

학 력 : 한양대 요업과, 한양대 대학원 졸업

경 력 : 육군 준장
태권도 5단



강원식 전무이사

생년월일 : 1938. 12. 8

학 력 : 경희대 상학과 졸업

경 력 : 광신기업사 대표, 대한태권도협회 사무차장, 아시아태권도연맹 집행위원, 국기원 이사(현재), 부원장, 국기원 지도자연수원 부원장, 세계태권도 연맹 기술

위원장, 경북학원 감사(현재), 태권도
학회 회장,
태권도 8단

포 상: 대통령 표창, 체육훈장 백마장



송덕영 이사

현 직 업: 필립모리스 코리아(주) 사장

생년월일: 1944.

학 력: 미국일리노이즈대학, 와튼대학원 졸업

경 력: 필립모리스 아시아(주) 이사, 대한태권
도협회 부회장



황경노 이사

현 직 업: 한국금박공업(주) 대표이사

생년월일: 1930. 2. 13

학 력: 육군종합학교, 서울대 경영대학원 최고
경영자과정 수료

경 력: 홍일상업(주) 전무이사, 제7회 세계선
수권대회 한국대표선수단 단장(1985)

포 상: 체육훈장 백마장, 국민훈장 석류장



박세영 이사

현 직 업: 한주통신 주식회사 대표이사 겸 회장

생년월일: 1940. 1. 27

학 력: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하바드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 력: 대우실업 주식회사 사장, 서울올림픽
조직위원회 사무차장, 한국무역협회 이
사 겸 수출진흥분과위원장(현재), 한국
섬유제품수출조합 부이사장(현재)



정세화 이사

현 직 업: 주식회사 요업개발 대표이사

생년월일: 1935. 7. 29

학 력: 서독국립요업학교 수료, 서울대행정대
학원 수료, 미국 BRIDGEPORT 대학
교 명예 법학박사

경 력: 한국요업주식회사 이사, 대한도자기공
업 협동조합 이사(현재), 사단법인 한
국요업총회 부회장(현재 이사)

포 상: 상공부장관 표창, 대통령상 2회, 상공
부장관상, 산업훈장(석탑, 철탑, 동탑)



김현식 이사

현 직 업: (주)동아출판사 대표이사 사장

생년월일: 1933. 3. 8

학 력: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 대한유리공업주식회사 전무이사, 두산
요업주식회사 대표이사, 두산기계주식
회사 대표이사 부사장, 사장



김현우 이사

현직업: 제우교역주식회사 대표이사

생년월일: 1947. 5. 4

학력: 한양대학교 요업공학과 졸업

경력: 삼화실업주식회사, 조광피혁, 범홍상
사, 보루네오 수마트라 무역회사 근무



김성민 이사

현직업: 학교법인 서경대학교 이사장

생년월일: 1931. 4. 29

학력: 연세대 사학과 수료, 서울대 · 연세대 ·
고려대 · 미국조지워싱턴대 · 모스크바
국립대학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경력: 학교법인 성한학원 설립 이사장, 대일
고, 은주중, 정릉여상, 대일외국어고
설립, 국제대학 인수 이사장 학교법인
국제학원 이사장, 주식회사 요업개발공
사 감사(현재), 주식회사 진미식품 감
사(현재)



이명희 이사

현직업: 변호사

생년월일: 1933. 10. 12

학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경력: 제8회 고등고시 사법과 합격, 서울고등
검찰청 검사, 대검찰청 검사, 춘천지방
검찰청 검사장,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장, 법무부 연수원장, 대검찰청 차장검
사,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대법원 판
사



정태인 이사

현직업: 동일건설주식회사 대표이사

생년월일: 1945. 9. 18

학력: 한양대 경영학과 졸업

경력: 유송실업주식회사, 건부건설 상무이사



조덕연 이사

현직업: 국립의료원 진료부장

생년월일: 1940. 9. 6

학력: 카톨릭 의과대학, 대학원 졸업(박사학

위 취득), 덴마크 코펜하겐 국립대학
연수

경력 : 국립의료원 인턴 및 정형외과 전문인
수료, 현재 서울대, 고려대, 카톨릭 의
과대학 외래 교수, 대한스포츠학회 이
사, 대한정형학회 이사장



이정길 이사

현 직 업 : 암정엔지니어링(주) 대표이사

생년월일 : 1941. 5. 25

학 력 : 경원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 : 한국개발주식회사, 울산엔지니어링 근
무, '92년제3회세계대학태권도선수권대
회 한국대표팀 단장(남녀 종합우승),
현재 용화산(주) 대표이사회장, 한국대
학태권도연맹 회장



장준웅 이사

현 직 업 : 태웅식품주식회사 대표이사

생년월일 : 1943. 1. 3

학 력 : 연세대학교 산업대학원 졸업

경력 : 현재 한국중고연맹 회장



임정태 이사

현 직 업 : 주식회사 KYC 대표이사

생년월일 : 1948. 4. 18

학 력 : 영남대 경영학과 졸업, 연세대 경영대
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수료, 경희대 신문방송
대학원 수료, 서울대학교 사법발전연구
과정 수료

경력 : 주식회사 KYC 이사, 전무이사 역임,
현재 영덕중고등학교 영해장학회 동창
회 부회장, 한국국민학교 태권도연맹회
장, 신양 성임전자고분유한공사(중국
현지법인) 대표이사



이금홍 이사

현 직 업 : 정인미술관 회장

생년월일 : 1936. 2. 10

학 력 : 연세대 상경대학 경제과졸업, 고려대학
교 대학원 경제과 졸업

경력 : 연세대학교 총학생위원장, 전국택시사
업조합연합회 회장, 덕수공업주식회사
대표이사, 세계태권도연맹 집행위원 기
술위원장, 현재 세계태권도연맹 사무총
장
태권도 8단



김인석 이사

현 직 업 : 대한태권도협회 기술심의회 의장

생년월일 : 1926. 2. 18

학 력 : 경성공업중학교

경 력 : 대한태권도협회 이사, 심사분과위원장,
경기분과위원장, 기술심의회 부의장,
국기원 기술심의회 의장
태권도 9단



노희덕 이사

현 직 업 : 서울대 교수

생년월일 : 1934. 3. 6

학 력 : 서울대 체육교육학과, 서울대대학원 졸업,
국민대대학원 박사학위 취득

경 력 : 한국대학태권도연맹 전무이사, 현재 한국
대학태권도연맹 부회장

포 상 : 체육공로상, 대한민국 체육상



백운대 이사

현 직 업 : 육사 골프장 전무

생년월일 : 1939. 5. 7

학 력 : 부산대 공대 조선공학과 졸업, 동국대
행정대학원 안보행정학과 졸업
경 력 : 육군대령 예편, 국영공업(주) 상무이
사, 북청음료(주) 사장
태권도 8단



이장원 이사

현 직 업 : 국기원 총무이사

생년월일 : 1930. 8. 17

학 력 : 단국대학교 법정대학 법률학과 졸업

경 력 : 육군중령 예편, 국기원 사무국장



박희원 이사

현 직 업 : 서울 은광여자 고등학교 교장

생년월일 : 1942. 1. 15

학 력 :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법과 졸업, 고려
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 미국 웨이스
신학교 졸업(종교교육학 박사)

경 력 : 안양남국민학교, 송곡, 정화, 은광여고
교사, 교감, 숭의여자전문대학 강사 역
임, 영등포공고, 안양남국교, 은광여고,
육사, 안양체육관, 서울신림체육관, 청
석학당 사범 역임(태권도 8단), 은하교
회 당회장(목사)



주영호 이사

현 직 업 : 주식회사 녹성 대표이사

생년월일 : 1948. 1. 17

학 력 : 명지대 국어국문학과 졸업, 연세대 산업대학원 경영학과 수료

경 력 : 진영상사 대표, 원일상사 대표, '91무역의날 상공부장관상 수상 및 500만불 수출의탑 수상



박충일 이사

현 직 업 : 신흥인쇄 주식회사 대표이사

생년월일 : 1935. 5. 18

학 력 : 동국대학교 법정대학 법학과 졸업, 동국대학교 정보산업대학원 졸업

경 력 : 한국대학태권도연맹 부회장, 현재 대한 인쇄문화협회 회장,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감사, 대한인쇄문화 단체협의회 회장



이청재 이사

현 재 : 덕성실업, 덕성투자개발 대표이사

생년월일 : 1946. 2. 20

학 력 : 연세대 상경대학 경영학과 졸업

경 력 : 삼양식품공업(주) 근무



송봉섭 감사

현 직 업 : 서울시태권도협회 부회장 겸 전무이사

생년월일 : 1940. 8. 18

경 력 : 서울시협회 총무이사, 전무이사, 부회장, 태권도 8단



김옥중 이사

현 직 업 : 광산지업주식회사 대표

생년월일 : 1948. 11. 25

학 력 : 영남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경 력 : 쌍용전기(주), 서울동훈상사(주) 근무



조영기 감사

현 직 업 : 전남협회 부회장

생년월일 : 1938. 8. 27

경 력 : 현재 영광체육관 관장, 전남체육회 이사, 태권도 8단



▲ '93년도 정기대의원총회

'93년도 대한태권도협회 사업계획 확정

대한태권도협회는 1월 14일 올림픽회관 1층 중회의실에서 93년 정기대의원 총회를 열고 올해의 사업계획과 지난해의 8억 5천 1백만원의 결산보다 1억 4천 6백만원이 늘어난 9억 9천 7백만원의 예산을 통과시켰다.

올해 추진할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 편집자 주 -

기본방향

협회는 올해 사업의 기본 방향을 체육정책 방향이 국민 누구나 참여하는 생활체육을 통한 국민복지 증진과 엘리트 선수를 통한 국위선양의 두가지로 집약됨에 따라 협회의 사업도 지난

92년도의 제1회 태권도 한마당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것을 계기로 삼아 전국 3천 5백여 일선 도장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경기 부문에서는 제도와 장비의 과학화를 통하여 종주국의

위상을 확립하는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

국제교류 부문에서는 남녀 세계선수권대회 및 월드컵의 제패를 통해 국위선양에 이바지하며 중국, 베트남 등 사회주의 국가의 순회시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회원 서비스 강화를 위한 전산화 추진과 동시에 전국도장의 PC 통신망 보급을 통하여 시도지부와 일선도장의 내실 있는 경영체제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생활체육대회의 확산 추진

대한태권도협회는 태권도가 무도로서의 본모습을 되찾는 한편 남녀노소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생활스포츠로의 발전을 꾀하기 위해 태권도 한마당 대회를 창설해 92년 12월 9일부터 11일까지 올림픽 제2체육관에서 품새 및 격파대회를 개최한바 있다.

태권도 한마당 대회는 2일간의 TV 생중계와 대한 뉴스를 통해 전국민에게 큰 홍보효과를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겨루기 일변도로 발전해온 태권도를 품새와 격파 등 무도 본연의 모습을 보여 주면서 인기 스포츠로 자리잡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협회는 올해 제2회 태권도한마당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생활체육대회로 굳건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년도 태권도 한마당의 미흡한 점을 개선하고 TV 홍보 및 참가자의 대폭 확대, 예선제도의 연구 및 시행, 일선도장의 참가 의욕을 고취하기로 했으며 해외지부의 참가도 촉구코자 한다.

올해 태권도 한마당대회는 11월 19일부터 21일까지 올림픽

제3체육관(역도경기장)에서 개최된다.

국내 경기대회의 질서확립 및 국제대회 제패

그동안 남자부 경기만 치르어졌던 전국체전 태권도 경기에 올해부터 여자부 8체급경기가 시범종목으로 추가 채택됨으로써 여자부에 대한 시도지부의 집중투자와 육성이 예상됨에 따라 한국여자 태권도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이와 함께 대한태권도협회는 전국체전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 경기장 질서 문란 행위를 근절시키기로 했다.

제74회 전국체전은 10월 11일부터 17일까지 광주에서 개최된다.

올해는 이밖에도 국가대표 1, 2차 및 최종 선발대회를 비롯해 중별선수권대회, 여자개인선수권대회, 제22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제28회 대통령기 전국단체대항대회, 남녀우수선수선발대회를 비롯해 3개연맹이 주관하는 전국 대회가 개최된다.

국제대회는 7월 22일부터 8월 1일까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제4회 월드게임에 10명의 국가대표선수단을 파견하게 된다.

이번대회에 한국 남자 4체급, 여자 2체급 엔트리를 배정받았다. 한국은 월드게임(23개종목)에 세차례 출전하여 모두 종합우승을 차지한 바 있다.

또한 8월 19일부터 21일까지

미국 뉴욕 매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열리는 제11회 남자 및 제4회 여자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에 남녀 8체급씩 16명의 선수와 5명의 임원을 파견하게 된다.

협회는 국제대회에서 한국팀이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국위를 선양할 수 있도록 선수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회주의 국가 태권도 교류 확대

대한태권도협회는 92년도에 베트남과 중국에 태권도 국가대표 시범단을 파견, 태권도보급 및 활성화에 기여했다.

한국 대표시범단은 92년 7월 베트남 올림픽위원회의 초청으로 호치민시에서의 태권도 경기뿐만 아니라 수도 하노이에서 태권도 시범을 보임으로써 주월한국군의 철수 이후 20년간 단절되었던 양국 스포츠 교류의 재개뿐 아니라 태권도 보급의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또한 중국에 공식적으로는 처음으로 92년 12월에 태권도 시범단을 파견, 연변에 있는 연변대학과 북경에 있는 민족대학에서 시범을 보인바 있다.

대한태권도협회는 올해에도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과 베트남에 시범단을 파견하는 한편 중국과 베트남의 태권도 관계인사를 종주국으로 초청하여 태권도의 이해를 증진시키는 등 태권도 교류 기회를 확대해 나갈으로써 이들 국가에 대한 태권도 보급을 활성화시켜 나가기로 했

'93년도 주요 행사 계획

월	일	행 사 명	장 소
2	5 ~ 6 11 ~ 12 18 ~ 19	경기규칙강습회(코치, 감독) (심판) 상임심판교육	올림픽회관대강당 올림픽회관1층 중회의실
3	2 ~ 5 9 ~ 12 29 ~ 31	'93년도 국가대표 1차 선발대회(남·녀) '93년도 국가대표 2차 선발대회(남·녀) '93년도 국가대표 최종 선발대회(남·녀)	올림픽제2체육관 서울체고
4	10 ~ 16 22 ~ 24 28 ~ 30	'93년도 전국 중별 선수권대회(고등부) 제20회 대학연맹 개인 대회 '93년도 전국 중별 선수권대회(중등부, 일반부)	올림픽제2체육관 국 기 원 "
5	1 ~ 4 11 ~ 16 19 ~ 20 28 ~ 31	제3회 용인대 총장기 대회 제20회 중고연맹회장기 대회 '93년도 전국 여자 개인 선수권대회 소년체전	" 잠실학생체육관 국 기 원 경 기 도
6	1 ~ 5 28 ~ 30	제28회 대통령기 전국 단체대항 태권도대회 제5회 경희대 총장기 대회 제22회 소년체육대회	수원실내체육관
7	22 ~ 8.1	제4회 월드게임	해 이 그
8	19 ~ 21 22 ~ 29	제11회 남자 및 제4회 여자 세계선수권대회 제4회 체육청소년부장관기 중고대회	뉴 욕 잠실학생체육관
9	25 ~ 26	제16회 대학연맹 회장기대회	관동대 체육관
10	1 ~ 3	제17회 연세대 총장기 대회 제74회 전국 체육 대회	연세대 체육관 광 주
11	10 ~ 12 19 ~ 21	'93년도 우수선수선발대회 태권도 한마당 '93	국 기 원 올림픽제3체육관

다.

내실 경영체제 확립

협회는 그동안 시도지부의 팩시밀리 설치 등으로 행정 업무 간소화를 통한 능률을 제고시켜 왔는데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회원 요청사항을 신속 처리 하기 위한 사무국 업무 전산화를 추진해 회원 서비스부문을 강화

해 나가기로 했다.

보다 신속한 업무처리와 방대한 태권도계 자료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될 것으로 기대되는 업무전산화를 위하여 올해 3천만원의 예산을 책정 했다.

한편 협회는 92년 12월에 시도지부와 등록도장간의 원활한 정보소통과 행정편의를 위해 컴퓨터 통신망을 보급키로 하고 한국 PC 통신에서 제공하는 단

말기가 설치되어 온라인 정보망이 구성되면 각 도장은 중앙 및 시도지부로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각종 정보를 직접, 동시에 받아봄으로써 향후 전체 태권도 운영체계의 획기적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협회는 수익 증대를 위한 협찬 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한겨레]

'92년도 주요사업 요약

'94 히로시마 아시안게임 종목(남자)채택

'93년 전국체전 여자부(시범) 채택

1. 국내대회

총 20회 개최

선수 10,410명 참가

-개인전 11회 4,226명 참가

-단체전 9회 6,184회 참가

* 국방부장관기대회 신설 군·민 267명 참가

2. 국제대회

총 5회 개최

임원 17명, 선수 52명 참가

-제10회 아시아선수권대회(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

•참가 규모

18개국, 선수 175명

•한국선수단

임원 4명, 선수 16명

•결과

남자-종합우승 금6, 은1

여자-종합우승 금5, 은2

-제5회 이란혁명기념대회

•참가 규모

10개국, 126명

•한국선수단

대전직할시 팀 임원 4명,

선수 8명

•결과

금5, 동1 종합우승

-제25회 바르셀로나 올림픽태권도경기

•참가 규모

32개국, 선수 128명

•한국선수단

임원 2명, 선수 8명

•결과

남자-금3, 동1

여자-금2, 동1

-제3회 세계대학선수권대회

•참가 규모

18개국, 선수 126명

•한국선수단

임원 5명, 선수 16명

•결과

남자-금7, 동1(종합우승)

여자-금3, 은2(종합우승)

-제4회 국제군인선수대회

•참가 규모

13개국, 선수 87명

•한국선수단

임원 2명, 선수 4명

•결과

금1, 동1

3. 국제회의

-회의명

제10차 아시아태권도연맹 정기총회

-일시

1992년 1월 30일

-장소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 그랜

드울림픽 호텔

-회의대표

홍중수 부회장

-주요안건

•'92~'96 ATU 회장에 최원

영씨 선출

•차기대회 유치국 선정-쿠

웨이트(잠정)

4. 시범단 파견

-베트남

•기간: '92.7.15~20

•장소: 하노이, 호치민

•인원: 강원식 전무이사외 13명

-중화인민공화국

•기간: '92.12.20.~30

•장소: 북경, 연길

•인원: 홍중수 부회장의 11명

* 북방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체육외교의 첨병역할을 다함.

5. 승품·단 심사 추천

-심사대회 205회 개최, 242,943명 추천

6. 강습회

-총 7회 실시, 941명 참가

•경기규칙 강습회 2회, 384명 참가

•심판보수교육 및 강습회 5회, 557명 참가

•자격취득(1급:12명, 2급:27명, 3급:192명)

7. 대표선수 강화훈련

-아시아선수권대회 대비 강화훈련

•기간: '92.1.7~26

•장소: 태능선수촌

•인원: 코치 2명, 선수 16명

-바르셀로나 올림픽대회 대비 강화훈련

•기간: '92.2.9~7.20

•장소: 태능선수촌

•인원: 코치 2명, 선수 16명

8. 기타 사항

-제1회 태권도 한마당 개최

•기간: '92.12.9~11

•장소: 올림픽 제2체육관

•참가인원: 1,389명

•기타: 대회 3일중 2일간

KBS TV생중계 및 대한뉴

스 방영 실시

-전국체육대회(제74회, 광주시: 93.10.11~17)에 여자부 8체

급경기 시범종목 채택

-'94 히로시마 아시안게임 태권도 경기(남자) 채택

•'92.4.25 OCA 결정

대한태권도협회 표창수여

— 영광의 얼굴들 —



▲ 지도상을 수여하는 김종식부회장

대한태권도협회는 2월 18일 올림픽회관 1층 대회의실에서 태권도 최고의 영예로운 상이라 할 수 있는 대한태권도협회 표창 수여식을 갖고 우수도장상, 지도상, 우수선수상 등 3개부문의 수상자 52명에게 표창장과 훈장을 수여했다.

태권도의 생활체육 유공자로서 성공적인 도장을 운영하는 사범에게 수여한 우수도장상에는 16명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92년도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탁월한 지도능력을 발휘한 18명의 지도자에게는 지도상의 영예가 주어졌다.

또한 92년도 각종 국내외 대회에 출전하여 우수한 경기력을 발휘한 우수선수 18명에게는 우수선수상이 돌아갔다.

대한태권도협회는 90년도부터 시도지부와 연맹의 추천을 받아 태권도 각부문에 공이 큰 인사를 선정, 표창하여 사기를 진작시킴으로써 태권도 발전에 기여한다는 취지로 매년초 정기 표창을 실시해 왔는데 올해 표창 수상자로 선정된 영광의 얼굴들은 다음과 같다.

우 수 도 장 상



▲ 김용길(서울)
1964년생
청룡체육관 사범



▲ 이상신(인천)
1952년생
동암체육관 사범



▲ 김주열(충북)
1942년생
옥천 청도체육관 사범



▲ 임윤택(서울)
1953년생
신성체육관 사범



▲ 이병도(광주)
1960년생
전남체육관 11도장



▲ 이병노(충남)
1952년생
당진체육관 사범



▲ 왕무창(부산)
1944년생
왕무체육관 사범



▲ 강병훈(경기)
1959년생
상록체육관 사범



▲ 김창석(전북)
1949년생
부안청도체육관 사범



▲ 서종수(대구)
1942년생
대구 삼일체육관 사범



▲ 최홍배(강원)
1947년생
화천체육관 사범



▲ 김경호(전남)
1949년생
화랑체육관 사범



▲ 이정효(사범)
1940년생
강무도장 사범



▲ 최낙덕(경남)
1953년생
진주 국기도장 사범



▲ 오훈종(제주)
1953년생
호돌이 체육관 사범

지 도 상



▲ 장 권(서울)
1962년생
서울체고 감독



▲ 김우규(부산)
1947년생
동아대 감독



▲ 정우득(대구)
1949년생
승일체육관 사범



▲ 김영수(인천)
1948년생
문성여상 코치



▲ 박형대(광주)
1961년생
고려고등학교 교사



▲ 이계승(대전)
대전체고 교사, 감독



▲ 최동순(경기)
1956년생
고양여자 중고등학교
태권도 지도사범



▲ 정정환(강원)
1957년생
강원중학교 코치



▲ 지용석(충북)
1966년생
지용석체육관 사범



▲ 권재일(충남)
1962년생
지곡고등학교 코치



▲ 소병희(전북)
1948년생
전북체고 교사, 감독



▲ 김미봉(전남)
1966년생
광양고 코치



▲ 시인규(경북)
1961년생
경북체고 코치



▲ 문상훈(제주)
1955년생
현대자동차 대리,
태권도부 코치



▲ 김웅일(제주)
1955년생
대정중학교 체육교사



▲ 문원재(대학연맹)
한국체육대학 코치



▲ 임순길(중고연맹)
1949년생
경수중 코치



▲ 조임형(국교연맹)
1962년생
경기 서릉국민학교 코치

우수 선수 상



▲ 이종현(서울)
1968년생
국군체육부대



▲ 이현석(부산)
1971년생
동아대학교



▲ 박정태(대구)
1974년생
대구 계명대학교





▲ 이선희(인천)
1972년생
용인대학교 태권도학과



▲ 조현식(광주)
1972년생
조선대학교



▲ 심기선(대전)
1975년생
대전체고



▲ 안홍엽(경기)
1973년생
용인대학교 태권도학과



▲ 하태경(강원)
1969년생
강원도 춘천군청



▲ 류인평(충북)
1978년생
청주중학교



▲ 김경렬(충남)
1973년생
보령군청



▲ 함 준(전북)
1968년생
전주시청



▲ 조진호(전남)
1974년생
여수고



▲ 이창건(경북)
1965년생
경산시청



▲ 박재완(경남)
1971년생
진주 경상대학교



▲ 김태형(제주)
1969년생
국군체육부대



▲ 박세진(대학)
1971년생
경희대학교



▲ 정명숙(중고)
1975년생
혜성여고



▲ 남보라(국교)
1980년생
안양석수국민학교

93년도 태권도 국가대표 1, 2차 선발대회

93년도에 개최되는 태권도 국제대회에 파견할 국가대표선수 선발대회가 개최되었다.

최종 국가대표선발대회를 앞두고 최종전 진출자를 가리기 위해 실시된 1차 대회는 3월 2일부터 5일까지, 2차 대회는 3월 9일부터 11일까지 올림픽 제2체육관에서 거행되었다.

1, 2차 선발대회 출전자 모두가 전국 규모대회에서 입상한 바 있는 우수선수들간의 대결로 매 경기마다 치열한 접전이 펼쳐졌다.

1차 선발대회에서는 남자 246명, 여자 99명 등 총 345명, 2차 대회에는 남자 224명, 여자 76명 등 총 300명이 출전하였는데, 1차 및 2차 대회의 체급별 1, 2위자들은 국가대표 각종 선발대회에 출전하여 92년도 국가대표 1, 2위자, 92년도 우수선수 선발대회 체급별 1, 2위자들과 함께 겨루게 되었다.

1차 대회에서는 남자부에서 고등학생이 전원 탈락하는 가운데 한체대가 4명, 경희대와 용인대가 각각 3명씩 최종 진출권을 따냈다.

여자부는 경희대가 4명, 상명여대, 중부대, 한체대가 각각 2명씩 진출자를 배출했다. 특히 고등부에서 천안여고의 서명숙,

은평여고의 김병희, 리라공고의 함진희, 고양여고의 박은선이 두각을 나타내며 대학부 선배들을 물리치고 최종전에 진입하였다.

2차대회에서는 남자부에서 경희대가 5명의 최종 진출자를 배출하였으며 이어 용인대에서 3명이 티켓을 따냈다.

여자부는 성신여대 4명, 용인대 3명이 최종전에 진출하였다.

특히 고등학생의 경우 남자부에서는 송곡고의 장영근이 패더급 최종전에 진출하는데 그쳤으나 여자부는 경성여실고에서 라이트급 강해은, 해비급 김윤경을 비롯해 천안여고, 김제상고, 송곡고, 배성여상에서 각각 한명씩 최종전에 진출하였다.

3월 29일부터 31일까지 열린 93년도 최종선발대회에 진출한 1, 2차 국가대표선발대회의 체급별 1, 2위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 1차대회 우승자들

(남자부)

▲핀급

- (1차) 소병관(경희대)
석운용(용인대)
- (2차) 최용훈(동아대)
이대훈(용인대)

▲플라이급

- (1차) 유성호(용인대)
조재성(경희대)
- (2차) 이화진(군군체육부대)
박재완(경상대)

▲밴텀급

- (1차) 장대순(한체대)
함 준(전북협회)
- (2차) 이지철(용인대)
김인경(한체대)

▲페더급

- (1차) 민경환(청주대)
이안호(경희대)
- (2차) 김정호(경희대)
장영근(송곡고)

▲라이트급

- (1차) 박의성(한체대)
강재구(계명대)
- (2차) 정을진(경희대)
박세진(경희대)

▲웰터급

- (1차) 김광수(한체대)
김동민(한체대)
- (2차) 박종상(금강체육관)
최정복(경희대)

▲미들급

- (1차) 정주석(국군체육부대)
정용국(동아대)
- (2차) 김정경(경희대)
장우화(용인대)

▲헤비급

- (1차) 김형태(조선대)
박형래(용인대)

- (2차) 안성주(충남대)
서현석(단국대)

(여자부)

▲핀급

- (1차) 유수진(경희대)
강선경(상명여대)
- (2차) 양소희(천안여고)
박은경(김제상고)

▲플라이급

- (1차) 이경수(중부대)
서명숙(천안여고)
- (2차) 서미라(용인대)
최재숙(송곡고)

▲밴텀급

- (1차) 함진희(리라공고)
김병희(은광여고)
- (2차) 김은숙(용인대)
이선영(송곡고)

▲페더급

- (1차) 신동선(성신여대)
윤 희(한체대)

- (2차) 양은정(성신여대)
김경애(용인대)

▲라이트급

- (1차) 김혜선(용인대)
진혜윤(경희대)
- (2차) 김옥남(배성여상)
강해은(경성여실고)

▲웰터급

- (1차) 조춘미(경희대)
정윤경(상명여대)
- (2차) 이영미(성신여대)
신경숙(인천전문대)

▲미들급

- (1차) 박은선(고양여고)
김은주(한체대)
- (2차) 이은주(성신여대)
이종원(중부대)

▲헤비급

- (1차) 장 철(경희대)
백현정(중부대)
- (2차) 김윤경(경성여실고)
김태희(성신여대)



대한태권도 협회

93년도 경기 규칙 강습회 실시

협회는 각팀의 코치, 감독 및 심판자격 소지자를 대상으로 경기규칙 강습회를 실시했다.

코치 및 감독을 대상으로 한 1차 교육은 228명이 참가한 가운데 2월 5일(금)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올림픽회관 1층 대회회의실에서 실시되었다.

또한 심판자격소지자를 대상으로 한 2차 교육은 207명이 참가한 가운데 2월 11일과 12일 이틀간 이론과 실기 강의가 있었다.

올해 한해동안 각종 경기대회에 참가하게될 심판과 팀의 코치 및 감독 등 지도자들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건전하고 명량한 경기장 풍토 조성, 바담직한 지도자상을 확립시키기 위해 실시된 이번 강습회는 경기규칙 해설(강원도 협회전무이사) 및 토론, 태권도 지도 계획 수립 및 지도 방법(윤성원 한국체육과학연구원 운동처방 실장), 지도자의 자세와 역할(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에 대한 강의로 이루어졌다.

이외에도 심판자격 소지자들에게 대해서는 심판 수신호, 주부심 채점기 사용방법에 대한 실기 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 수료자들은 올해 각 팀의 코치 및 감독으로 임원 등록

을 할 수 있으며 협회에서는 수료자 중 70명을 상임심판원으로 임명, 각종 대회의 심판으로 위촉할 예정이다.

93년도 1차 이사회 개최

협회는 2월 10일(수) 오후 6시 국방회관 대연회실에서 상견례를 겸한 93년도 1차 이사회를 열고 강원식 전무이사를 4년 임기의 전무이사로 재선출 하였다.

지난 1월 14일 올림픽회관 회의실에서 개최된 93년도 정기대의원총회는 최세창회장을 16대 회장으로 선출하고 신집행부를 구성한바 있다.

상임심판원 임명 및 교육 실시

경기장내 판정 시비를 없애고 심판부의 신뢰회복을 위해 90년도부터 상임심판원제를 운영하고 있는 협회는 93년도 상임심판원으로 70명을 선발하고 이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상임심판원들은 지난 2월 11일과 12일 올림픽회관 1층 대강당에서 실시된 경기규칙강습회 수료자들 중에서 선발되었는데 협회는 상임심판원에 대한 별도의 교육을 2월 19일 한국체육대학 태권도장에서 실시하였다.

상임심판원 70명은 3월 2일부터 5일까지 실시되는 93년도 국가대표 1차선발전을 시작으로

올해에 실시될 전국대회에서 활동하게 된다.

상임심판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고국환, 장용갑, 조호철, 박종명, 김기용, 이규현, 김강인, 박덕규, 유문규, 맹만호, 조한우, 이종찬, 박경선, 최돈오, 유백만, 양주호, 이천수, 박종률, 한상진, 노달선, 박광일, 김경찬, 민준원, 진용호, 김복녀, 서영애, 양인옥, 김병숙, 박정옥, 이성용, 이만우, 장병수, 송우길, 이종관, 김광현, 김갑식, 김영현, 최봉호, 김영태, 선우진, 최정호, 이종근, 정정식, 오수근, 장창영, 김현성, 김명환, 박홍신, 양천석, 장세백, 김현수, 나창홍, 이규섭, 문찬석, 김경호, 김원기, 이규중, 최복현, 홍현화, 김혜연, 홍진국, 안태연, 이봉학, 이정연, 강석환, 장수영, 구정희, 차청훈.

1993년도 장학생 36명 선발 장학금 총 7백만원 지급

협회는 경희대 및 용인대 태권도학과 성적 우수자 및 92년도 국내의 대회에서 뛰어난 경기력을 발휘한 우수선수 등 36명의 장학생을 선발하고 총 7백만원의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수여했다.

지난 2월 18일 올림픽회관 1층 대회의실에서 시행된 장학금 수여식에서는 중등부 10명에 각 10만원, 고등부 20명에 각 15만원, 대학부 6명에 각 50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되었다.



<장학생 명단>

▲ 남중부

유인평 (청주중학교)
김선진 (단국대부속중학교)
민병석 (단국대부속중학교)
홍기상 (공릉중학교)
박희철 (관교중학교)
신희중 (구월중학교)

▲ 여중부

정재은 (강남여자중학교)
황유지 (자양중학교)
강해은 (용곡중학교)
김명순 (동인천여자중학교)

▲ 남고부

김인동 (풍생고등학교)
방원철 (여수고등학교)
김태훈 (대성고등학교)
이진우 (선임고등학교)
이임수 (개금고등학교)
문권수 (풍생고등학교)
장경호 (송실고등학교)
임호빈 (강원사대부속고등학교)
김대훈 (동천고등학교)
김은철 (여수고등학교)

유용진 (정명고등학교)

김을진 (전북농업고등학교)
백 업 (부평기술고등학교)
김경훈 (동성고등학교)

▲ 여고부

정명숙 (혜성여자고등학교)
유수미 (리라공업고등학교)
김옥남 (배성여자고등학교)
양소희 (천안여자고등학교)
박정순 (김제북고등학교)
박은선 (고양여자종합고등학교)
▲ 대학부

박형근 (용인대학교)
김봉학 (용인대학교)
정대환 (용인대학교)
강관구 (경희대학교)
정현철 (경희대학교)
정찬문 (경희대학교)

기술심의회 임원 임명
의장에 김인석이사 유임

93년도 각종 사업의 실행업무
를 수행하게될 기술심의회 임원

- 의 장 : 김인석
- 부 의 장 : 이영근, 안영택, 김정지
- 지도위원 : 박부철, 배성실, 박덕규

소 속	직 책	성 명	비 고
기 획 분 과	위 원 장 부위원장	이택명 김석련 김상복	마명수, 안정회, 유승욱 박형철, 김진광, 김성익 임태택, 김상호, 김상익
경 기 분 과	위 원 장 부위원장	김용길 김갑식 나동식	김원기, 나창홍, 김홍식 김성배, 양인옥, 최주수 김춘배, 임택중, 조수청
심 판 분 과	위 원 장 부위원장	김대연 김명구 김영철	장세백, 장창영, 이천수 최복현, 강석환, 차청영 송우길, 오수근, 고영철
심 사 분 과	위 원 장 부위원장	고철성 김수민 김종임	이한현, 설동엽, 홍종배 배석출, 이상근, 현노제 황성수, 최완길, 성입성
상 별 분 과	위 원 장 부위원장	오함숙 김근용 김대용	정상기, 장이식, 배회동 현석주, 양천석, 진장환 선우진, 박종필, 박석압
경 기 력 향상분과	위 원 장 부위원장	박창덕 진중의 이백운	황영갑, 김영회, 유수철 장명수, 김재봉, 문원재 전정우, 손지희, 권중
국 제 분 과	위 원 장 부위원장	박현섭 유문규 김화룡	장용, 최명수, 오원길 최상구, 최근, 양희용 김화룡, 윤의식, 윤국균
연 구 분 과	위 원 장 부위원장	이승국 김인택 손천택	김인식, 조광민, 김영선 강태선, 안용규, 강형송 김선훈, 김지일, 은송
홍 보 분 과	위 원 장 부위원장	양영모 진종호 강성철	홍성남, 김진회, 배지영 김동임, 이만우, 김수훈 장종위, 김병숙, 정철
여 성 분 과	위 원 장 부위원장	윤종완 박필순 정효심	김준태, 박영수, 박기정 김지숙, 박정옥, 김영옥 지경순, 안연순, 최속
생활체육 분 과	위 원 장 부위원장	조호철 김용진 한상진	최성록, 심재권, 이동수 손영덕, 김홍배, 강길인 영성철, 김성철, 강대



김인석의장

이 선임되었다.

기술심의회 의장단 및 분과위원회 부위원장 이상 37명의 임원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은 2월 18일 올림픽회관 1층 대회의실에서 거행되었다.

기술심의회는 의장단을 비롯하여 11개 분과위원회 중 기획분과 이택명 위원장, 박창덕 경기력분과위원장, 박현섭 국제분과위원장, 양영모 홍보분과위원장, 윤종완 여성분과위원장, 조호철 생활체육분과위원장 등이 유임되었다.

신임 인사로는 이승국 한체대

교수가 연구분과위원장으로 선임되었으며 지난해 경기분과의 김대연위원장은 심판분과위원장으로, 심판분과의 고칠성위원장은 심사분과위원장으로 보직 이동이 있었다.

한편 92년도에 상벌분과 부위원장이던 오함숙씨는 상벌분과위원장으로, 심판분과부위원장이던 김용길씨는 경기분과위원장으로 임명되었다.

92년도 결산이사회 개최

대한태권도협회는 1월 8일(금) 오후 6시 올림픽 파크텔 2층 화홀에서 92년도 결산 이사회를 열고 92년도 사업 및 8억 5천 1백여만원의 결산과 93년도 사업 계획 및 9억 9천7백여만원의 예산을 심의했다. 기타 결의된 안건은 다음과 같다.

▲중앙대의원 추천

-기술심의회 부의장인 안영택, 김경지, '92경기 분과위원장 김

대연씨와 '92여성분과 위원장인 윤종완씨가 추천되었다.

▲규정 개정안 심의

-세계태권도연맹 정기 총회 제출안건: 제11조 허용기술과 부위, 제12조 득점에 대한 경기규칙에서 대한태권도협회는 득점 부위와 허용부위를 일치시켜 개정하여 현재 시행 중에 있으나 세계연맹 경기규칙은 종전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며 보호구에서 몸통호구 득점부위 표시와 헤드기어의 청, 홍 색깔 구분에 있어 대한 태권도협회가 TV 중계 및 관중에게 선수 식별이 용이하고 미적효과를 높이도록 개정한데 비해 세계연맹에서는 종전의 규칙을 계속 사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정 개정안을 세계연맹 총회에 제출하기로 결의했다.

-선수등록 개정안: 대한체육회 규정 시행

-사무국 처무 규정: 1993년 1월 8일부로 대한체육회 처무규정을 준용하기로 결의했다.

이날 결산이사회에는 재직대의원 21명 중 최세창회장을 비롯하여 홍종수, 김순태, 송덕영, 이정길 부회장, 강원식 전무이사 등 총 14명의 이사 및 송봉섭, 조영기 감사가 참석했다.

홍종수부회장 등 태권도인사 12명
노태우대통령 체육계 인사
격려 오찬에 참석

노태우 대통령은 2월 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체육대 유공자



태권도 소식

들을 초청, 격려 오찬을 가졌다.

오찬에는 체육청소년부 장, 차관을 비롯해 체육단체장, 체육학계 및 언론계 인사, 88및 92 올림픽 금메달 리스트 및 임원, 생활체육 및 프로 경기 분야 인사 등이 초청됐는데 태권도에서는 홍중수부회장을 비롯해 88 서울올림픽 유공자로 이승국, 김영인 코치와 금메달리스트인 권태호, 하태경, 지용석, 정국현, 추난틀선수, 92바르셀로나 올림픽의 주신규, 임신자 코치 및 금메달리스트 황은숙, 이선희 등 총 12명이 참가했다.

92바르셀로나올림픽 금메달리스트 김재경 대한 체육회 표창 우수선수상 수상



국군체육부대 소속의 김재경 선수가 2월 23일 올림픽회관 1층 대회의실에서 거행된 1993년도 대한체육회 표창수여식에서 우수선수상을 수상했다.

김재경선수는 지난해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된 제25회 올림픽대회 태권도 경기에서 해비급 금메달을 획득함으로써 강

인한 한국인상의 정립과 국위선양에 크게 이바지한 공로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서울특별시협회

'93년도 1차 이사회 개최 송봉섭 전무이사(부회장 겸임) 호선

서울시 태권도 협회는 구랍 21일 11시 신김행부 구성후 첫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신임 이사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사회에서 규약 제 3장 13조 3항에 의거 향후 임기 4년의 전무이사에는 송봉섭 이사(부회장 겸임)가 만장일치로 호선 되었다.

'93년도 사업개시

'93년도 대의원 총회에서 확정된 사업계획에 의거 새해들어 첫 심사대회가 지난 1월 10일 1품 응심자 1,200명이 참가한 가운데 국기원에서 개최되었다.

응심자 전원은 추운 날씨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일선 체육관에서 갈고 닦은 품새와 겨루기 솜씨 등을 아낌없이 발휘하여 참석한 학부모들의 칭찬과 박수를 받았다.

서울시협회는 올해부터 1품 심사과 2, 3품 심사 대회를 분리 실시, 대회의 혼잡을 피하고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 기준을 직

용하여 지도자와 학부모, 응심자들로 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심사제도가 정립되도록 하였다.

1993년도 기술 전문위원회 임원 위촉

서울시협회는 93년도 기술전문위원회 임원을 위촉하고 2월 2일 11시 국기원에서 위촉장 수여식을 기행하였다.

임원위촉에있어서는 실무분과 위주로 조직을 개편, 각분과의 자율과 독립성을 유지하고, 불신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부분을 과감히 공개하여 모든 행정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임원규회장은 임원들에게 『수직적인 틀을 벗어나 창의력을 갖고 철저한 봉사 정신으로 열과 성을 다해 맡은바 임무를 충실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위촉된 임원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 ▲ 지도위원 : 정천수 한상국 최완길 이덕태
- ▲ 의 장 : 유병호
- ▲ 부 의 장 : 임윤택
- ▲ 경기분과 위원장 : 김경일
- ▲ 심판분과 위원장 : 전만식
- ▲ 고단자 심사 위원장 : 최주열
- ▲ 승단 심사 위원장 : 조한우
- ▲ 승품1분과 위원장 : 임윤택
- ▲ 승품2분과 위원장 : 한만균
- ▲ 승품3분과 위원장 : 이규훈
- ▲ 도장관리 위원장 : 박광일

- ▲ 상별 위원장 : 박경선
- ▲ 시별 위원장 : 최재무
- ▲ 국제분과 위원장 : 전관선

'93년 상임 심사 위원 위촉

서울시협회는 93년도 심사 행사에서 채점을 담당할 상임 심사위원 128명을 위촉하였다.

그동안 한정된 임원들이 전담했던 심사 채점 업무를 일선에서 체육관을 운영하는 사법들이 대폭 참여토록함으로써 심사 행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공개운용하기로 했다. 이는 일선 지도자들로 하여금 심사제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태권도 지도능력을 향상시키며 인재를 육성시키는데 사명감을 갖도록 한다는데 그 취지를 두었다.

〈서울 박노규·김종오 편집위원〉

부산시협회

제18대 회장 이·취임식

1992년 12월 7일 부산호텔에서 열린 '93년도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제18대 부산 태권도협회 회장으로 선출된 김차진 회장(51, 대기섬유 대표이사)의 취임식이 2월 13일 한일레포즈빌딩에서 있었다.

지난 4년간 부산태권도협회를 이끌어왔던 최용수 회장의 뒤를 이어 회장에 취임한 김차진 회장은 평소 태권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부산태권도협회의 이사와 부회장을 지낸 사업가이다.

한편 새로 취임한 김회장은 전회장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그



▲서울시 기술심의회 임명장 수여식

태권도 소식

간의 경험을 토대로 부산태권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였으며, 이임하는 최용수 전 회장은 회장직을 떠나게 되어 서운한 마음이 들지만 명예회장으로서 부산태권도 발전을 위하여 항상 같이 걱정하고 협조하겠다고 하였다.

수료증을 수여하였다.

이에 앞서 김차진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부산태권도를 이끌어갈 수강생들에게 지도자의 자질향상과 지도방법에 따른 이론과 실기를 겸비하여 부산태권도 발전에 더욱 힘써 달라고 하였다.

'93 경기규칙강습회

부산태권도협회에서는 부산지역에서 개최되는 각종 규모의 경기대회시 대한태권도협회의 통일된 경기규칙에 의해 대회를 원활하고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93년도 경기규칙 자체강습회를 개최하였다.

강습회는 지난 3월 8일 부산일보 10층 강당에서 160여명의 관장, 사범, 코치, 감독이 참가한 가운데 경기분과에서 개정된 경기규칙에 대한 이론과 심판분과에서 심판 실기교육을 하고

제1회 승품·단 심사대회

부산태권도협회는 지난 2월 14일 구덕체육관에서 부산태권도협회의 '93년도 첫행사인 '93년도 제1회 승품·단 심사대회를 2,100여명의 응심자가 참가한 가운데 성대히 실시되었다. 이날 김차진 회장은 심사에 앞서 '92년도 제6회 심사대회의 우수도장으로 선정된 감천체육관 최천수, 온천체육관 정임식, 보배체육관 이재환, 삼덕체육관 허맹옥, 거학체육관 박영철 관장에게 표창을 하였다.



대구직할시협회

제1회 승품·단 심사대회 개최

대구협회에서는 올해의 첫 행사로 2월 23일 대구실내체육관에서 승품단 심사대회를 실시하고 총 2천 3십명의 유품단자를 배출했다.

품단별로 보면 1품 1185명, 2품 462명, 3품 95명, 1단 158명, 2단 65명, 3단 48명, 4단 14명, 5단 3명이다.

경기·심판 보수교육 실시

대구협회는 지난 3월 6일 일선 도장 사범, 태권도부 감독, 코치, 선수 등 150명이 참가한 가운데 경기·심판 보수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교육에서는 배영상 계명대학교 체육학과 교수 겸 태권도부 감독이 “태권도 지도자의 자세 및 태권도운동의 과학적인 원리”라는 제목으로 특별강연을 하여 교육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

대구협회내 태권도팀 방문

대구협회의 정우득 전무이사 및 김문화 총무이사 등 협회 임원들은 2월 한달간 협회내에 소속된 학교 태권도부를 방문하여 학교장 및 체육주임 감독, 코치 등 학교 태권도 관계자를 만나

태권도부 발전에 관해 환담하였다.

방문팀을 보면 국민학교 11개교, 중학교 6개교, 고등학교 2개교, 대학교 2개교 등 총 21개 학교로 협회에서는 각 학교별로 호구복 6벌, 미트 10개씩을 전달하며 태권도부원들을 격려했다.

뜨거운 동포애 화제 만발, 중대구태권도협회 사할린 태권도 교류 활발

중·소 이산가족회의 활동이 활발한 가운데 대구태권도협회 산하 중대구협회(회장 박성진, 전무 박우서)와 러시아 공화국의 사할린태권도협회간의 미담이 향토 체육계에 화제가 되고 있다. 과거 강제 징용되었다가 정착해 살고 있는 동포 2,3세대들이 열악한 환경속에서 태권도를 배우고 있는 것을 보고 중대구태권도협회에서는 도복 120벌과 태권도교본 책자 100여점을 중소이산가족회(회장 이두훈)에 전달하여 태권도사할린협회(회장 민태춘)는 고맙다는 회신과 아울러 태권도 기술 교류, 경기용 장비 보조, 도복 지원 등과 이를 협의하기 위해 6월달에 방문해 줄것을 요청해왔다. 이에 대구시태권도협회에서도 산하 지부에 협조를 얻어 지원하기로 하였다.

〈대구 정우득 편집위원〉

인천직할시협회

2월 승품단 심사대회 실시

인천직할시협회는 2월 14일 인천실내체육관에서 승품단 심사대회를 실시하여 996명의 합격자를 배출하였다.

품단별 현황을 보면 1품 548명, 2품 261명, 3품 52명, 1단 84명, 2단 26명, 3단 17명, 4단 8명이다.

광주직할시협회



▲이병도 편집위원

1960년생

조선대학교병설공업전문대

토목과 졸업

태권도 5단

전남체육관 11도장 사범

태권도지 편집위원에 이병도 사범 임명

광주협회는 계간 태권도지 지역 편집위원으로 전임 윤웅석 편집위원 후임에 이병도 관장을

태권도 소식

임명했다.

이병도 선임 권집위원은 현재 전남체육관 11도장 사범으로 태권도의 생활체육 확산에 이바지함은 물론 광주 태권도발전에 기여해 왔다.

제74회 국제 준비에 총력

광주협회는 92년 12월 26일에 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92년도 사업 및 결산을 승인하고 93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심의, 확정하였다.

임원선출에서는 현 김주훈회장(조선대 체육대학장)을 만장일치로 유임시켰다.

김주훈회장은 올해의 제74회 전국체육대회가 광주에서 개최되는 만큼 현회에서는 성공적으로 대회를 운영하기 위해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태권도부 임원 및 선수들이 총력을 다해 경기력을 향상시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당부했다.

(집행부 임원 명단)

- 회 장: 김주훈
- 부 회 장: 김우일, 한길진, 정철웅, 김상천, 조종석
- 전무이사: 윤관석
- 총무이사: 김민철
- 경기이사: 박현종

승품단 심사대회 실시

광주협회는 2월 7일 염주종합

체육관에서 93년도 첫승품단 심사대회를 실시하였다.

심사대에는 1품 360명, 2품 95명, 3품 36명, 1단 104명, 2단 50명, 3단 29명, 4단 20명, 5단 4명 등 총 698명이 응시하여 그동안 연마한 기량을 보여주었다.

광주협회는 응심자들 중에서 기량이 뛰어난 수련생 10명(품새부문 5명, 겨루기부문 5명)을 선발해서 상장과 함께 트로피를 수여하였다.

〈광주 이병도 권집위원〉

대전직할시협회

93 정기 대의원 총회 개최

대전직할시 태권도협회(회장 한 용석)에서는 93년도 정기 대의원총회를 구랍 28일 개최하고 제2대 협회장추대 및 93년도 사업계획을 확정 했다.

자치구단의 대의원 및 학교·사회·직능대표들의 대의원이 참가한 가운데 대림관광호텔 "킹" 홀에서 열린 이번 대의원 총회에서 한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다사다난했던 지난 4년 동안의 임기는 대전태권도의 기틀을 다지는 원년이었다고 회고하고 대전 태권도인들이 한마음으로 뭉쳐 협회행정적 적극 협조 해 준대 대하여 감사드린다"고 말하고 "인도네시아, 러시아, 멕시코 등 여러나라들과 상호경

기를 통해 한국을 알리고 태권도의 진수를 보여 주는데 기여한바 자못 컸다"고 평하고 "앞으로 태권도 선·후배들의 뜻을 모아 태권도를 통해 세계속의 한국을 알리는데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시체육회 박찬규 사무처장은 격려의 말을 통해 "94년은 우리 고장 대전에서 전국 체육대회가 개최되는 만큼 태권도 가족을 중심으로 가장 모범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서두르자"고 말해 참석한 태권도 관계자들로부터 환한 박수를 받았다. 이어 제2대 협회장 추대에 있어서는 대의원 만장일치로 현 한용석회장을 재추대하고 93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93년도 사업 목표로는, 첫째, 우수선수 육성 둘째, 고난도 기술개발 셋째, 전국체전상위권쟁취로 정하고 협회행정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93년도에는 제5회 대전직할시 소년체육대회를 비롯하여 8건의 각종대회와 4회의 승·품단 심사대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12월 전태권도인의 화합과 단결을 위한 "태권도인의 밤" 행사를 성대하게 개최 하기로 했다. 금년 예산으로 회장 찬조금을 포함하여 89,455,576원을 확정했다.

한회장은 그간의 태권도국제화 및 우수선수발굴, 회원친목도모에 공이 큰 오노균(시협회

섭외이사, 국제심판) 김춘배(시협회공보이사), 이형진(시협회경기부차장)씨에게 각각 공로패를 수여했다.

한·멕시코 우의 증진

대전직할시 태권도협회(회장 한용석)에서는 12월 13일부터 12월 20일까지 제8회 국제멕시코 태권도대회에 참가하여 한국을 알리고 귀국했다.

대전체육고등학교(태권도감독 이계승) 태권도선수를 중심으로 이번 대회에 출전한 대전시태권도선수단은 멕시코 태권도 협회 분대원 사범의 초청으로 이루어졌다. 비자엘모사주 체육관에서 주어왕 및 주지사 등 각급 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1차 대회를 성공리에 마무리 하였으며 멕시코시티에서 개최된 2차 대회에서도 2천여명의 관중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성황리에 대회를 마치고 종합 우승을 차지했다.

(한·멕시코대회 임원명단)

- 단 장: 한용석(대전직할시태권도협회장)
- 부단장: 이용우(시협회부회장)
- 총감독: 이진수(시협회전무이사)
- 감 독: 한만준(대전체고교감)
- 임 원: 장석봉(시협회경기이사) 김춘배(시협회공보이사) 김선공(경기부임원) 이창선(충남대학교경영대학원)
- 코 치: 장태윤(충남대학교지도

자, 시체육회전임코치)

제1회 동구청장기 태권도대회

제1회 대전직할시 동구청장기 타기 태권도 대회가 11월 14일 대전직할시 태권도 협회주최로 동구생활체육관에서 성대하게 개최되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구민의 체위증진 및 생활체육 태권도의 활성화를 위해 개최된 이번 대회에서 관내 유자각 태권도선수 140명이 참가하여 열띤 경연을 벌였다.

대전장인 동구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기 태권도를 사랑하는 동호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우의와 친선을 다지는 이번 대회를 통해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디딤돌이 되자"고 역설하고 "태권도인들의 화합된 이간치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협조 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93년 대전세계무력박람회에 태권도인들이 중심이되어 태권도를 세계인들에게 알리는 데 기여 하자"고 당부했다.

임원장인 이진수 시협회전무이사는 "태권도는 예의를 생명으로 하는 무도인 동시에 스포츠이므로 충절의 고장 이곳 한밭에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자치구단위 태권도대회의 예산을 전액 구지원으로 치르는만큼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고장 사랑운동과 예의를 지도 하자고 말하고, 메사의 모든일에 모범이 되고

태권도 소식

지역사회의 숨은 일꾼이 되자”
고 인사말을 대신했다.

이대회를 위하여 구의회에서
도 적극 협조를 아끼지 않았으
며, 시협회에서는 공인심판원
및 대회운영 전반에 대하여 감
독 지원 하였다.

이번 대회는 동구태권도의 위
상을 드높였으며, 태권도의 자
긍심을 심어 주는 대회였다.

〈대전 오노균 편집위원〉

경기도협회

1,2,3월 승품단 심사대회서
총 5470명의 합격자 배출

경기도협회는 1월 10일, 2월
7일, 3월 7일 등 3차례에 걸쳐
수원실내체육관에서 승품단 심
사대회를 개최하고 총 5470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월별 합격자현황을 보면 1월
에 승품 701명, 승단 337명, 2월
에 승품 1463명, 승단 553명, 3
월에 승품 1863명, 승단 553명
이다.

강원도협회

승품단 심사대회 실시

강원도협회는 제1회 승품단
심사대회를 3월 5일 춘천시 국
제체육관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대회에 총 1568명이 응

심하여 1481명의 유단품자를 배
출하였다.

제2회 춘천시 교육장배 근
화국교, 강원중 차지

강원도 춘천시협회는 3월 12
일 춘천농업고등학교 체육관에
서 제2회 춘천시교육장배경탈
대회를 개최하였다.

국민학교부와 중등부 경기가
펼쳐진 이날 대회에는 총 144명
이 선수가 출전한 가운데 펼쳐
져 초등부는 근화국민학교, 중
등부는 강원중학교가 각각 종합
우승의 영광을 차지했다.

또한 초등부 저학년부는 부안
국민학교, 고학년부는 근화국민
학교가 우승을 차지했으며 근화
국민학교의 허승호선수와 강길
현교치가 최우수선수상과 지도
상을 받았다.

중등부 체급별 우승은 신경호
(소양중), 장강순 정유천 이필
형 김윤식 이창희 최진수 진기
철(이상 강원중), 박경준(춘천
중)이 차지했다.

화천체육관, 우수도장상 수상

강원도내의 태권도장 중에서
화천체육관(최홍배 관장)이 대
한 태권도협회 우수도장상을 수
상하는 영광을 차지했다.

화천체육관은 1971년 2월 28
일에 개관한 이래 20여년이 넘
는 역사속에 5천여명에 달하는
유단품자를 배출하며 지역 태권

도 발전에 이바지해왔다.

특히 화천체육관 수련생들은 각종 전국 대회 및 도민체전, 학도체전 등에 출전하여 뛰어난 기량을 자랑하며 우수한 성적을 올려왔다.

신임 편집위원에 김남주씨 임명

강원도협회는 계간 태권도지 편집위원으로 김남주씨를 임명했다.

김남주씨는 92년도에 강원도협회 직원으로 입사했다.

▲김남주 편집위원

1970년생

상지대학병설전문대학출업

출판사 "민기획" 근무

92년 강원도협회 입사

충청북도협회

정만순부회장, 충북체육회 이사 피선

충북협회의 정만순부회장이 지난 2월 13일 충북체육회 이사회총회에서 충북체육회 이사로 피선되었다.

정만순부회장은 현재 청주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면서 태권도 발전에 이바지해왔음은 물론 체육학의 연구에도 뚜렷한 성과를 보여왔다.



영국에서 귀국한
임관인 사범,
청주에 '월드 태권도 체육관'
개관

임관인 사범은 영국 태권도협회의 초청과 대한태권도협회의 도움으로 지난 86년 9월에 영국으로 건너가 '런던'에서 "월드 태권도 클럽"을 조직 운영하면서 우리나라 태권도를 그곳 영국에 보급시키고 지난 93년 2월 20일 귀국하여 지난 93년 3월 7일 고향인 청주에 "월드 태권도 체육관"을 개관해 우리 충북 태권도계에 화제가 되고 있다.

임사범은 영국에서 6년 6개월동안 여러개의 태권도 클럽을 조직 관장하면서 관원 800여명을 배출 시켰으며, 영국 태권도 연맹 요청으로 대표 선수 코치를 5년간 하면서 태권도를 통한 국위선양에 기여한 바 크다 하겠다.

임사범의 그동안 태권도 활동을 간략히 살펴보면, 청주 대성중학교때 전국 소년 체전에서 은메달 2회 획득을 비롯해서 고등학교때 전국체전(60회)에서 우승, 청주 대학때 체육부장을 역임하면서 전국체전(63회)때 우승, '80년 제15회 대통령 하사기 쟁탈에서 우승한 바 있으며, 국군체육부대(상무)에서 선수생활, 제천시청태권도 실업팀 선수로 활약하는 등 그동안 선수 생활을 통해 획득한 메달수만도 30여개에 달하는 화려한 전적을 갖고 있는 사범이다.

그동안 풍부한 선수생활, 코치, 사범생활을 경험으로 '태권도체육관'을 개관하게 된 임관인 사범에 거는 기대가 우리 충북태권도협회에서 거는 기대가 자못 크다 하겠다.

〈충북 박한규 편집위원〉

태권도 소식

심판원 보수교육 실시

충북도내 심판원들의 자질향상과 올해의 각종 태권도 대회에서의 공정하고 정확한 심판운동을 기하기 위해 충북협회는 지난 3월 7일 도내 70여명의 심판원이 참여한 가운데 심판원 보수교육을 실시하였다.

심판원 보수교육은 경기규칙에 대한 강의 및 심판원의 자세에 대한 강연이 있었으며 충북체육회의 이규문사무처장 등 체육회 관계 인사들이 참관하며 태권도인들을 격려했다.

충청남도협회

2월 378명의 승품단자 배출

충청남도협회는 2월 21일 대전시민체육관에서 승품단 심사대회를 실시하였다.

이날 심사에서는 총 378명이 합격하였는데 품단별 현황을 보면 1품 164명, 2품 22명, 3품 3명, 1단 127명, 2단 33명, 3단 16명, 4단 9명, 5단 4명이다.

전라북도협회

1차 승품단 심사대회 실시

전북협회는 93년도 1차 승품 및 심사대회를 2월 28일 오전

10시 전주 실내체육관에서 개최하였다.

심사에는 총 947명이 응심하였는데 품단별로 보면 1품 480명, 2품 158명, 3품 40명, 1단 160명, 2단 57명, 3단 52명이다.

〈전북 이윤영 편집위원〉

전라남도협회

승품·단 심사대회 개최

전남 협회에서는 1월 30일 목포 유달경기장에서 목포지구심사, 31일에는 전남 체육관내 태권도 훈련장에서 전남지구 심사가 개최되어 총 569명의 합격자가 배출되었다. 품단별로 합격자를 보면 1품 258명, 2품 99명, 3품 13명, 1단 103명, 2단 49명, 3단 27명, 4단 15명, 5단 5명이다.

제22회 전국 소년체전 2차 평가대회

전남 협회에서는 2월 17일 전남 태권도 훈련장에서 소년체전 2차 평가전이 78명의 선수가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각 계급별 우승자를 보면 서지훈(서현식 허종립(이상 이수중), 최선주(보성중) 정종천(이수중), 이성남(영광중), 정태전(서면중), 류승현(물양중), 허현(이수중), 이규림(여수중), 김선철(이수중)이 차지했다.

신임 편집위원에 한현영씨

전남협회는 김현수 편집위원의 후임으로 한현영씨를 임명했다.

〈전남 한현영 편집위원〉

경북협회

경북협회는 지난 12월 13일 오후 3시 경북체육회관 2층강당에서 정기대의원 총회를 개최하고 1억 1천만원의 93년도 예산을 통과시켰다.

이자리에서 임원선출을 위한 5명의 전형위원을 구성, 김기산 회장을 유임시키고 이사선임을 회장단에 위임하였다.

한국대학연맹

한국대학태권도연맹은 정기이사회에서 제9대 회장 이정길(주)암정엔지니어링 대표이사를 선출한데 이어 앞으로 4년간 대학태권도연맹을 이끌어갈 신임 집행부를 구성했다.

〈신임 집행부 명단〉

- 회장: 이정길(주암정엔지니어링 대표이사)
- 부회장: 노희덕(서울대학교수) 유병권(주서대물산대표이사) 류창용(남서울에이스

상사대표이사)
이규석(용인대학교수)
최인범(경기대학교수)

- 전무이사: 최영렬(경희대학교수)
- 실행이사: 김주훈, 박홍식, 이승국, 윤종완, 정만순, 김우규
- 이사: 김성찬, 김용안, 나봉순, 배영상, 박용준, 박점수, 소재석, 손천택, 이훈, 이상호, 이은송, 정당채, 정행도, 지삼업
- 감사: 김경지, 김계홍
〈대학연맹 지병윤 편집위원〉

중고 연맹

회장 이취임식

중고태권도연맹은 2월 5일 하오 6시 인터콘티넨탈호텔 국화룸에서 신임 장준웅 회장과 이우생전회장의 이취임식을 가졌다. 장준웅회장은 그동안 중고연

맹 부회장으로 재직하여 오다 92년 12월 4일 뉴월드 호텔에서 개최된 정기 이사 총회 임원선출에서 신임회장으로 선출된바 있다.

대한태권도협회는 태권도 발전을 위해 애쓴 이우생 전회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신임 장준웅 회장 약력〉

1943년생
연세대학교 산업대학원 졸업
대용식품주식회사 대표이사

〈중고연맹 집행부 임원명단〉

회장: 장준웅(대용식품 대표)
부회장겸 전무이사: 김인수(동성고 교사)

이사: 이현갑(대성고 교사)
김찬희(대성중교사)
김부영(고려중 교사)
조현길(한성고교사)
박종식(동성중교사)
정해주(신암중교사)
최재혁(대명중교사)
이충구(성암여상교사)



태권도 소식

최권열(문성여중교사)
박주호(창원고교사)
감사: 안영택(상계체육관장, 대한태권도협회부의장)
이택명(서울시경, 대한태권도협회 기획분과위원장)

국기원

이사회 개최

국기원은 1월 26일 르네상스 호텔에서 김운용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이사회는 신임 이사로 김용래 전서울시장을 보강하는 한편 국기원 직제를 개편하기로 의결했다.

국기원은 직제개편을 통해 총무이사직을 신설, 전 이장원 사무국장을 총무이사로 임명하였고 이창목 사무차장을 사무국장으로 승진 임명하였다.

또한 세계태권도본부로서의 위상을 강화시키고 대내외 태권도 홍보를 통한 발전을 꾀하기 위하여 공보실을 신설하기로 하였다.

기술심의회 임원 임명

국기원은 기술심의회 의장단을 비롯해 분과별 실행업무를 담당하게 될 93년도 기술심의회 임원을 임명하였다.

기술심의회 의장에는 황춘성씨가 유임되었다.

11개분과위원회에 새로이 임

명된 임원명단은 다음과 같다.

- 자문 의원: 김순배, 박해만, 이영섭
- 의장: 황춘성
- 부의장: 김용서, 강성구, 전재규, 장기승
- 지도위원: 권경옥, 박명수, 문창남
- 기획위원장: 심재익, 김용수, 부위원장: 맹만호, 한용석
- 심사위원장: 김중영, 김영삼, 부위원장: 임윤택, 박용희
- 과학위원장: 고동준, 허영길, 부위원장: 김장식
- 국제위원장: 이덕태, 김학근, 부위원장: 임용규, 노수길
- 사재위원장: 임홍수, 김진위, 부위원장: 박찬수, 김관중
- 교육위원장: 이규현, 서인종, 부위원장: 서경무, 이성용
- 편집위원장: 구정도, 이고범, 부위원장: 전만옥
- 연구위원장: 안해옥, 김기일, 부위원장: 이상구
- 시범위원장: 이규형, 최재무, 부위원장: 이종관, 최봉호
- 상벌위원장: 김정대, 이동섭, 부위원장: 이학진, 최정선
- 협력위원장: 강영목, 김종길, 부위원장: 김영철, 김명수

국기원 연감 발행

국기원은 건립20주년을 맞아 「국기원 1971~1992」를 발간했다.

1971년에 건립되어 세계태권도인의 전당으로 태권도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온 국기원은 그동안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를 비롯한 각종 국제대회 및 국내대회 개최장소로 활용되어 왔을뿐만 아니라 태권도지도자 연수원을 설치하여 지도자를 양성하여 왔다. 또한 국기원 대표 시범단의 해외 순회 시범활동으로 종주국의 위용을 떨치며 전 세계에 태권도를 보급시키는 역할을 담당해왔다. 국기원 연감에는 화보로 꾸민 국기원 20년의 발자취를 비롯해 국기원 기구 및 현황, 품단증 발급현황, 지도자교육 실시현황, 국기원 연혁 등을 게재함으로써 국기원의 역사적 사료로서의 가치가 높다고 본다.

제74기 사범교육 및 3급 생활체육지도자교육 실시

국기원 태권도 지도자 연수원을 태권도 지도자의 자질향상, 지도능력배양 등 전문지도자를 양성하여 국민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3월 18일부터 31일까지 제74기 사범교육 및 3급생활체육지도자교육을 실시하였다.

총 150명이 수강한 이번 교육



은 태권도정신, 지도자의 역할과 사명 등 교양과 특강을 비롯해 체육학개론, 운동생리학, 트레이닝방법론, 스포츠심리학, 스포츠사회학, 체육행정론, 태권도사 등으로 이루어졌다.

세계태권도연맹

올해 세계대회부터 “즉시 채점제도입”

WTF는 경기시 효율적이고 공정한 판정을 기하기 위한 작업의 하나로 오는 8월에 뉴욕에서 개최되는 제11회(여자4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시부터 현재 대한태권도협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즉시 채점기’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국제심판보수교육을 통해 이 채점기의 사용을 교육시키고 있다.

3회 국제심판보수교육 실시

- 12회 국제심판보수교육 : 92년 9월 30일~10월 2일, 프랑스 파리, (유럽지역) 23개국에서 77명 참가
- 13회 국제심판보수교육 : 92년 11월 28일~30일, 美 콜로라

도 스프링즈, (미주지역) 15개국에서 73명 참가

- 14회 국제심판보수교육 : 93년 3월 4일~6일, 필리핀 마닐라, (아시아, 중동지역) 15개국에서 77명 참가

한편 93년 2월 1~5일로 예정되었던 제28회 국제심판세미나는 사정상 93년 4월 26~30일로 연기되었고 장소는 모로코의 라바트로 동일하다.

아시아 태권도 연맹

사무실 이전 개소식 기술위원장에 정세구 서울대교수 임명

아시아태권도연맹은 사무실을 충청로 1가 IMI빌딩으로 이전하고 2월 17일 오후 6시에 각계 인사 및 태권도 관계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개소식을 가졌다.

이날 최원희회장은 정세구 서울대교수를 기술위원장으로, 탕영신 말레이시아 뉴스트레이트 타임즈 기획실장을 상벌위원장으로 각각 선임하는 등 범아시아적인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한정**

‘道의 의미를 살릴때다’

“
태권도인들이 후손들에게
가장 자랑스러운 업적은
‘올림픽정식종목 채택’이 아니라
바로 올바른 전통의 계승이
될 것이다.”
”



김유석 / 63년 서울출생
82년 고려대 신문방송학과입학
89년 일간스포츠 체육부기자
91년 서울방송 스포츠취재부기자

무협영화에서 자주 등장하는 소림사(少林寺)는 중국 하남성 숭산(崇山)의 서쪽 기슭에 위치해있다. 서기 527년 인도에서 온 보리달마(菩提達磨·달마대사)가 이곳에서 승려들의 건강증진과 정신수양을 위해 동물의 몸동작을 응용한 독특한 무술을 창안했다. 흔히 ‘소림권법’으로 알려진 이 무술은 이후 중국전역으로 전파됐고, 소림사는 중국무술의 발원지로 유명해졌다.

19세기말 혼란기에 소림사는 폐찰이 되다시피했으나 80년대들어 등소평을 비롯한 중국의 최고 실권자들이 소림사재건과 무술복원에 관심을 가지면서 다시 옛모습을 찾았다.

지금 소림사에는 세계각국에서 모여든 2천여명의 수련생들이 무술을 익히고 있다. 소림사는 또한 중국을 여행하는 관광객, 특히 아시아지역사람들에게는 꼭 가보고 싶은 지역의 하나로도 꼽힌다.

무협영화에서처럼 하늘을 날아다니고 손바닥에서 장풍을 일으키는 기인이 소림사에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중국무술의 원류라는 위치와 오랜 전통에서 느낄 수 있는 숙연한 분위기, 그리고 이 사찰을 이끌어가는 승려들과 수련생들의 진지한 자세가 소림사를 중국무술인의 성지(聖地)로까지 올려놓았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국기원은 세계 129개국에 퍼져있는 우리나라의 국기(國技) 태권도의 총본산이다.

3백만 명의 수련생이 있는 종주국인 우리나라를 제외하더라도 외국인유단자만 20만명에 이를



소림사는 중국무술의
원류라는 위치와 오랜전통에서오는 숙연함,
승려와 수련생들의 진지한자세로 중국무술의 聖地로 부각되었으나,
국기원은 소림사와 같은 상징적의미가 결여되었다.



정도로 태권도는 세계적인 무술로 발전했다.

그러나 세계태권도인들의 정신적인 지주로 자리잡아야 할 국기원의 위상은 중국무술의 원류인 소림사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다. 국내의 구분없이 태권도를 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국기원의 현재 모습에 실망을 느낀다고 한다. 국기원에는 소림사와 같은 상징적인 의미가 결여돼 있다는 것이다.

태권도의 총본산을 방문한다는 부푼 마음을 안고 국기원을 찾았던 한 스페인대학생은 자기나라에 있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체육관' 하나만 볼 수 있었다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91년말에 개관한 태권도기념관에도 '경기'와 관련된 자료의에는 찾아보기 어렵다.

태권도를 국제화하는 과정에서 '경기'적인 측면을 강조할 수 밖에 없었다는 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태권도 본래의 의미인 '도(道)'의 측면에 더 많은 관심을 쏟아야 할 것 같다. 어쩌면 올림픽에 시범종목 또는 정식종목으로 채택되느냐의 여부보다도 태권도의 장래에 더 중요한 영향을 줄 수도 있는 문제다.

태권도는 원래 체력단련을 통한 자기 수양에 더 큰 목적이 있다. 자기수양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의 승패에만 비중을 두게 된다면 다른 종목들과 다를 바 없다. 전국체전이나 대표선발전에서 간혹 판정시비로 인한 소동이 일어나거나 지나친 응원으로 경기장분위기를 흐려놓은 일이 생기는 것도 이 때문이다.

상대를 꺾기위한 '수련'이 아닌 자기자신을 이

기기위한 '수련'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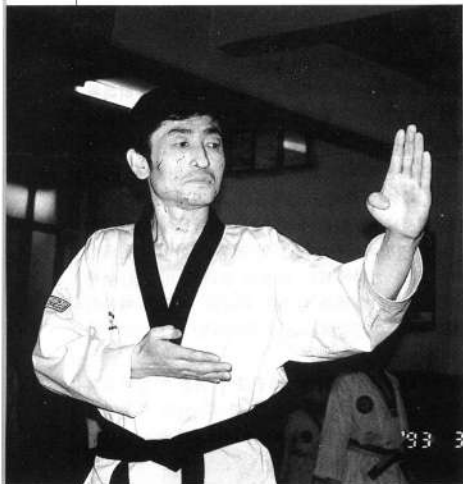
현재 태권도는 '뿌리'를 찾는 일에 소홀히해왔다. 고유의 무술인 '태권'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외에는 우리나라사람들도 자세히 알지못한다. 옛 자료를 보존하려는 노력이 부족했고 원로태권도인들에 대한 예우에도 인색했다. 국가대표선수들보다 원로태권도인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존경받아야만 태권도의 전통은 이어지게 돼있다. 힘과 기량에서는 뒤질지 몰라도 이들을 통해 태권도본래의 뜻과 의미를 되새길 수 있기 때문이다. '술은 어른앞에서 배워야한다'는 말도 있지 않은가.

2천년대가 오기전에 태권도가 새롭게 탈바꿈하기를 기대해본다. 전통을 느낄 수 있는 수련장에서 원로들이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배우고 숙연한 분위기속에서 수양을 쌓는 모습이 보고 싶다. 큰 크리트로 만든 체육관에서는, 그리고 전자식채점판과 시작·종료를 알리는 벨소리속에서는 느낄 수 없는 정경일 것이다.

태권도에도 소림사와 같은 상징적인 장소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곳은 '도(道)'의 의미를 살릴 수 있는 조건들을 갖춰야 한다. 여러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겠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태권도인들이 후손들에게 가장 자랑스러운 업적은 '올림픽정식종목 채택'이 아니라 바로 올바른 전통의 계승이 될 것이다. **FWP**

성동 중앙체육관에서 태권도를 수련하는 4, 50대 수련생들



▲태권도로 불혹의 나이를 잊은 안종건 교수

40대에 접어들어 성인들은 건강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때보다도 고조되지만 여건상 시간을 내서 매일 운동을 하기가 쉬운일이 아니기 때문에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태권도 도장도 이러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거의 모든 도장이 유치부 및 국민학생들을 대상으로 태권도를 지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성인부가 수련하고 있는 몇 안되는 태권도장 중에 재단법인 성동중앙체육관에서는 사회 각계층의 성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도복을 입고 태권도를 수련한다.

7년전부터 태권도를 수련, 지난해에 3단으로 승단한 안종건씨(45세, 방송통신대 농학과 교수)는 매일 한가한 시간을 이용해 태권도를 1시간씩 수련하고 있다.

30대 후반이 되면서 건강을 위해 무슨 운동이든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고등학교때 몇달간 태권도를 수련해본 경험을 되살려 태권도장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다고 한다.

최근들어 그는 동료 교수들로부터 체력이 떨어진다든 이야기를 종종 들곤 하지만 체력이 떨어지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젊은 시절의 체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태권도가 온몸을 움직여서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성인들에게는 무리한 운동이 아닌가라는 선입견을 갖기 쉬우나 그는 태권도가 오히려 성인들을 위한 운동으로 적당하다는 견해를 피력한다.

성동중앙체육관에서는 오후 3시30분부터 4시 30분까지의 국민학교부 수련시간을 제외하고는 오전 6시30분부터 오후 10시 30분까지 1시간 단위로 성인들이 수련하고 있다.

수련생들은 아무때나 시간이 나면대로 도장에 와서 1시간씩 태권도를 수련한다.

지도자로는 최돈오관장(43세, 대한태권도협회 상임심판원)을 비롯해 2명의 사범이 교대로 지도를 맡고 있다.



▲성동중앙체육관 유단자회원들

교육은 예의로서 경건하게 시작함은 물론 끝나는 시간에는 묵상으로 하루를 반성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

이러한 교육구성은 무엇보다도 이기주의에 빠지기 쉬운 나 자신으로부터 국가와 사회를 바라보는 넓은 시야와 함께 자신을 반성하는 시간을 갖기가 쉽지 않은 성인들에게 자기반성의 시간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태권도 수련시간은 매일 매일의 삶을 재충전시켜주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안교수는 2,30대의 젊은이들과 함께 태권도를 수련하다보면 어느새 자신도 젊어진다는 기분을 갖게 된다고 한다.

성동중앙체육관에는 안교수를 비롯해 태권도를 수련하는 성인들이 150여명이 있다. 특히 수련생들 중에 승단한 유단자들은 유단자회를 조직해 태권도장을 떠나더라도 매일 세째주 토요일 오후 5시에 모임을 갖고 태권도를 수련한 뒤 즐거운 친목의 시간을 갖는다고 하는데 안교수는 유단자회의의 회장이기도 하다.

유단자회는 회원간의 친목도모 뿐만 아니라 성동중앙체육관에서 수련하는 수련생들을 대상으로 장학생을 선발해 분기별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올해초에는 11명의 장학생을 선발해 중학생은 5만원, 고등학생 8만원, 대학생에게 50만원씩의 장학금을 수여한 바 있다.

유단자회의 부회장을 맡고 있는 박재한씨(한국응용통계연구소 근무, 4단)는 이 도장에서만 17년째 태권도를 수련, 5단 승단을 눈앞에 바라보고

있다.

그는 태권도를 통해 배운 무도정신을 발휘, 성동경찰서 자율방범 순찰대장으로 지역 청소년의 선도예 남다른 열성을 보여주고 있는 숨은 일꾼이기도 하다.

유단자회의의 감사를 맡고 있는 안용출씨(남대문시장 관리소 근무, 52세)는 승단을 하지 않아 붉은띠를 매고서 3년째 태권도를 수련하고 있는 최고참중의 한사람이다.

“무엇보다도 태권도를 수련하는 그 순간에 하루에 쌓인 피로와 스트레스를 풀게 됩니다. 가벼운 마음과 몸으로 도장 문을 나서면 다시 내일을 즐겁게 맞을 수 있습니다.”

성인들의 태권도를 통한 즐거움은 이밖에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나누는 친목도모, 폭넓은 경험에서 나오는 인생공부라고 한다.

서울농대 출신으로 농학박사인 안종건교수는 수련생들과의 대화시간에 간혹 이렇게 묻는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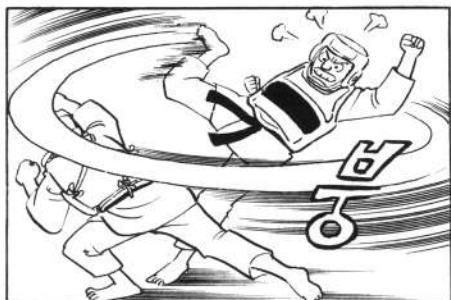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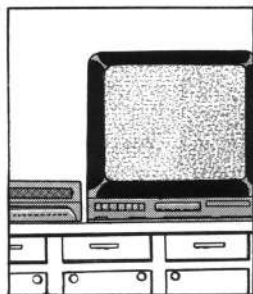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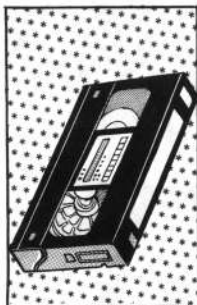
“지금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나”

그러면 수련생들은 가지각색의 의견을 내놓는다고 한다. 그렇게 자신의 할일을 생각해 보면서 지금 그 나이에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를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가 강조하는 것은 사람들은 시간과 때에 따라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이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

태권가족



이향원





재브라질 태권도협회 김윤식 회장



▲ 김윤식회장(중앙)과 신임집행부

재브라질 태권도협회와 사범 협회로 양분되어 있던 재브라질 태권도인들을 재브라질태권도협회로 통합, 제7대 회장으로 선출된 김윤식씨(51세 8단)가 지난 2월 귀국, 대한태권도협회를 예방했다.

김윤식 회장은 92년 11월 21일 정기 총회에서 6대 이계준회장의 후임으로 3년 임기의 회장으로 선출되어 1월 29일에 한국인이 많이 사는 쌍파울로의 한 식당 태극관에서 많은 한국인사범들과 김상인한인회장, 김정순총영사등 단체장들과 브라질 태권도 유단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 축하연을 가진바 있다.

—현재 브라질에는 한국인 사범이 몇명이나 활동하고 있으며

브라질 태권도현황은 어떠합니까?

브라질에는 현재 50여명의 한국인 사범이 있으며 지난 20여년간의 태권도 보급으로 브라질 사람들에게 태권도에 대한 인기가 높아 현재 20여만의 태권도 인구에 1500여명의 브라질인 유단자를 배출시켰습니다.

태권도가 최초로 보급된 것은 1970년도에 조상민사범(8단, 현재 미국거주, 초대 재브라질대한체육회장역임)이 브라질에 파견되면서 시작되어 23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은 15개 주연맹이 결속되어 있고 브라질연방 체육회에 브라질태권도협회로 정식 경기가맹 단체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재브라질 태권도협회가 앞으로 추진해 나갈 사업은 무엇입니까?

올해가 브라질 이민 30주년의 해입니다.

태권도는 이민 30년사의 상징으로 이민 문화를 정착시키는 역할을 해왔고 교포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어왔습니다.

재브라질대한태권도협회는 앞으로 우리 교포들에게나 브라질 이민사에 더 많이 기여할 수 있도록 중추적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이민 30주년을 맞아 한인회를 중심으로 많은 행사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협회에서는 각종 행사에 태권도 시범단을 보내 태권도를 다시한번 브라질내에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특히 협회에서는 한국교포들을 대상으로 제1회 교포 태권도 대회를 신설하고 브라질내 8개의 한인학교에 매주 사범을 파견하여 태권도를 지도함으로써 한인 2세들에게 한국의 얼을 심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브라질내 한국인 태권도 사범들간의 친목도모와 단결된 힘으로 국위선양과 교포권익신장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F422**

“93년도 전국규모대회 입상 가능성 엿보여”

— 조한구 교장선생님 적극지원 —

지곡고는 충남 서산군 지곡면 화천리 산 115-1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1974년 6월 7일 학교법인 창호학원 설립인가를 받아 동년 12월 27일 지곡고등학교 6학급 설립인가를 받고 1975년 3월 2일 개교 두차례에 걸친 학칙 변경을 통해 1993년 2월 10일 17회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개밭이 낙후되고 군내에서 군세가 가장 빈약했을 뿐만 아니라 중등교육기관이 유일하게 없었

던 지역에 교육혜택을 제대로 못받는 후배들에게 교육기회를 확대시켜 줌으로써 인재양성은 물론 지역사회발전에 앞장서며 올바른 국가관을 지닌 국가의栋梁으로 길러내기위해 학교를 설립하게 되었다는 조한구 교장 선생님은 남다른 열정과 탁월한 결단력 투철한 교육관을 가지고 학교경영에 혼신을 가한 덕분에 지금은 사학의 명문으로 자리를 굳혀 나가고 있다.

특히나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

육의 확대와 태권도 인구 저변 확대를 위해 1990년 4월 18일 충남협회 이 종송회장, 양준목 전무이사 도교육청관계자 등 지역유지들이 참석한 가운데 창단한, 태권도부는 지곡고등학교로서는 가장 큰 자랑거리다.

해마다 인근 중학교에서 특기자를 모집하여 창단후 전국대회 및 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3개 대학에 1명씩 진학을 시킨것은 물론 충남 대표선수로 전국체전에 참가하는 등 지역사회의 뿐만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곡고등학교라는 교명을 홍보하는데 일익을 담당하면서 '93년도에는 전국체전 및 전국대회의 우수한 성적을 목표로 하루중 아침 1시간 오후 5시간씩 맹연습에 열중하고 있다. 권재일 지도교사는 고려대학교 체육교육과 출신으로 경기인이며 '93년도 경기지도상을 수상한 유능한 지도자이다.

학교장:조한구, 감 독:정동기, 지도교사:권재일

〈충남 전병덕 편집위원〉



“93년 대한태권도협회 선정 우수도장”



김창석 관장

- 삼남 중학교 육성회 이사
- 부안 동국교 지역교육협회의 회 총무이사
- 부안군 태권도협회 실무 부회장
- 전북 태권도협회 심사 감독관
- 전북 태권도협회 의전 분과 이사

93년 대한태권도협회 우수도장을 수상한 청도체육관. 부안읍내에 자리잡고 있는 청도체육관 누구에게나 물어봐도 아! 청도체육관 하면서 친절히 알려줄 정도로 역사와 명성 있는 체육관 있다.

50여평 정도의 체육관에 수련생들의 손때가 묻은 호구와 운동기구들이 있었으며 사무실에 들어서자 체육관의 역사라도 말해 주듯이 상장과 트로피 메달이 즐비하게 걸려 있었다.

김창석 관장의 지도자는 고(故) 임경완 청도관 전북도본관장이며 부안경찰서 상무관사범시 1964년에 입문하여 1966년 12월 2년여 만에 갈고 닦은 실력을 발휘 초단에 합격의 기쁨을 맛음으로써 김 관장의 태권도 길은 열렸다.

1969년까지 수련하다 69~70년도에 부안 공회당에 부안 태권도 청도관을 톱밥과 가마니를 깔고 직접 사범생활을 시작하였다.

그러던중 1971년 11월에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입대

하여 국방부 헌병대 교관을 하고 74년 제대후 부안국교에 태권도부를 창설하였으며 76년 4월 2일에 부안읍 동중리에 부안청도체육관(현장소)에 간판을 내걸고 지도자의 길에 나섰다. 현재 김창석 관장은 운동경력 27년, 공인 7단이다.

유단자 배출만해도 27년여 동안 5,000여명 정도이며 지금까지 제자 배출만 해도 1만여명에 달한다고 한다.

현재 제자 중에서도 체육관을 운영중인 제자로는 우아체육관(전철기), 문화체육관(서성영), 부안 상서체육관(박경식), 주산체육관(김동훈), 창북체육관(조현도) 그 외에 사범으로 활동중인 제자로서 10여명이 있다고 한다. 현 부안 청도체육관 외에 부안 동국교, 부안여상, 일반경찰 무도사범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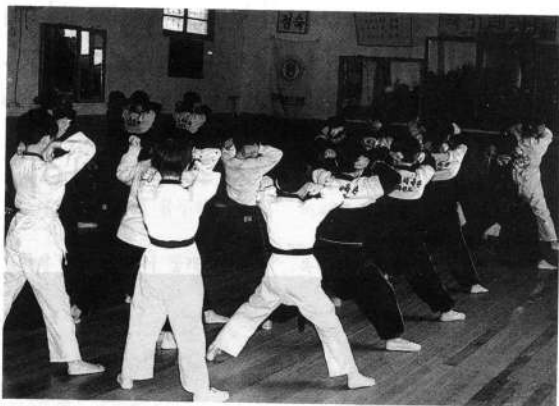
물론 사회활동에서도 뒤지지 않고 J.C특우회를 14여년 동안 하고 있으며 전북지역 체육분과위원을 79년 부터 활동하고 있다고 한다.

-지금까지 운동을 하면서 어렵고 힘들었던 점이 있다면?

•첫째는 경제적인 면이 제일 어려웠으며 그러나 불굴의 정신으로 참고 견디며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보람된 일이 있으시다면?

•후배들이 장성함으로써 예전에는 운동한 사람이라고 하면



대접을 못 받았으나 지금은 교육적인 면에서 큰 호응을 받고 있는게 무엇보다도 기쁩니다.

-태권도 선배 입장에서 후배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항상 자기 위치를 알고 청렴결백한 마음 가짐으로 훌륭한 제자 배출을 바랍니다.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다면?

•종합 스포츠 센터를 운영해보는게 바람이며 계획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창석 관장은 작년 5월에 부안여상 태권도부 창단에 100여명의 선수 육성에 힘을 기울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작년도지사배 종합 3위 회장기 2위 일반부 시군대항 경기 석권, 체육부

장관기 쟁탈에서 강미자 선수가 3위에 입상하기도 했으며 그간의 경기 전적을 보면 77년 전북 태권도대회 우승 이대현(현우석 대학 재학), 82년 우승 임국희, 임세롬, 90년 소년체전에서 동국교 강승현(해비), 김낙선(미들)에 우승, 90년 제3회 도지사배 1위 김용식, 전국체전 1차예선 1위, 강미자 페더급 전제임 1위를 이끌어 놓았다.

또한 김창석 관장은 태권도가족이었으며 가족은 3남 1녀로 첫째는 부안 삼남중학교에 수석으로 입학하였으며 현 태권도 3단, 둘째도 3품, 막내는 2품으로 아버지 못지 않게 운동을 좋아한다고 한다. 현재 체육관 수련생은 100여명이 수련에 임하고 있다고 한다. **한인**

<전북이윤영권집위원회>

'93대한태권도협회 우수선수상(광주)수상자 조선대학교 “조현식” 선수를 찾아”



▲ 조현식선수와 부친 조민국씨

'92년 10월 달구벌의 함성은 뜨거웠다.

'91년도 전국체육대회 태권도 경기에서 3위를 차지했던 광주 직할시의 태권도 입원 및 관계자들은 '92년 대구 체전에서 상당히 의기 소침한 상태였다.

메달 기대주였던 일반부의 이

계행·왕광연선수 등이 판정 및 자격시비로 인하여 일찌감치 시합이 포기된 상태였고, 남은 선수들마저 기대한 만큼 성적을 거두지 못한 상태에서 결승에 진출한 선수는 고·대·일반부 각 한체급씩 3체급만 남아 있었다. 광주 입원 및 선수들의 마지

막 애타는 응원만이 계명대 체육관을 뒤흔들고 있었고, 특히 대학부 플라이급의 조현식선수는 홈팀의 응원을 받고 있는 대구대표의 여원재선수와 최종 금메달의 영광을 놓고 격돌하게 되었다.

손에 땀을 쥐게 하는 한판 승부

실로 막상막하의 경기였다.

1. 2회전을 통하여 양선수의 득점은 3:3.

양팀의 진영은 그야말로 피가 마르는 긴장된 순간들이었다.

남은 마지막회전의 경기.

대구 응원팀의 기립응원에도 불구하고 승리의 영광은 조현식 선수에게로 돌아왔다. 주특기인 오른발 뒤돌려차기와 내려차기 등을 구사하며 3회전에 대량득점을 얻어 경고에 의한 감점에도 불구하고 조선수의 팔이 높이 들려질 때 한쪽 구석에서 남모르게 눈시울을 적시는 사람이 있었다.

14년 동안 아들에게 태권도를 배우게 하고 그의 뒷바라지를 해온 조현식의 부친 조민국씨(57세, 농산물도매업).

현식은 형제 중 막내로 국교 2년때부터 태권도장을 다녔다.

사업을 하는 부친이 바쁜까닭에 태권도장에 보내어 올바른 인간성과 건강한 정신을 배우게 하고 싶어 운동을 시켰는데 6학년 때 전남학도체전에서 1위를 차지하게 된것이 계기가 되어 본격적인 태권도의 길로 접어들

게 되었다.

체육중·체육고를 거쳐 조선 대학교에 진학하는 동안 수차례의 시합에서 입상하여 지역의 명예를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해냈고, 그 영광 뒤에는 부친의 눈물겨운 정성이 뒤따랐다.

전국시합때마다 아들을 따라 뒷바라지를 해온 까닭에 전국을 가보지 않은 곳이 없고, 그 열성 때문에 중앙임원들까지 서로 얼굴을 알게 되어 반갑게 인사를 나눌 정도가 되었다.

이로 인하여 받은 공로패와 감사패만 해도 수차례다.

이러한 정성과 열의가 현식이를 이만큼 성장시키는데 밑거름이 되었고, 나아가서는 지역태

권도인과 친밀한 유대관계를 가지면서 많은 사람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

3월 화창한 오후, 조선대학교 태권도 연습실에는 15명 남짓한 선수들이 구슬땀을 흘리고 있었다.

169cm의 자그마한 키에 빠른 몸동작으로 연습에 몰두하고 있는 조현식 선수.

현재 4학년으로서 장래희망은 체육지도자가 되어 후배양성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한다.

얼마전 2월 18일, 올림픽회관에서 대한태권도협회 시상식이었다.

광주직할시 우수선수로 선정

되어 수상을 하게된 조현식은 시상식장까지 함께 온 부친과 정담을 나누면서 담담히 소감을 말한다.

“다른 훌륭한 선수들이 많이 있는데 큰 영광을 안게 되어 기쁘지만 마음에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이 영광을 함께 오신 아버지께 돌리고 싶습니다.

'93년 올해는 광주에서 전국체육대회가 개최된다.

다소 심적인 부담도 있지만 동료후배들과 더욱 열심히 연습하여 태권도광주를 이루는데 한 몫을 다하고 싶다고 자신의 포부를 아무지게 밝힌다. **▶▶▶**

〈광주 이병도 편집위원〉

장승화, 「야망의 대륙」 액션영화로 솜씨발휘



이동준(6, 7회 세계대회 챔피언)과 함께 영화계에서 활약하고 있는 장승화(6회 챔피언, 사진)가 자신의 태권도 솜씨를 유감없이 보인 액션영화에 출연, 개봉을 기다리고 있다.

일제시대 중국 봉천을 무대로 일본 야쿠자들과 상권을 다투는 「야망의 대륙」(감독 임 선), 이 영화에서 장승화는 주인공인 이상대역을 맡아 열연했다.



이 영화는 한중수교 이후 중국대륙에서 촬영한 첫번째 영화로서, 액션전문의 홍콩배우 「호혜중」과 함께 출연,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다. **▶▶▶**

유럽 5개국 순회경기를 다녀와서

—국군체육부대 태권도 선수단—

황영갑 / 국군체육부대 태권도선수단 감독

- 기간 : 1993.1.9~2.10. (1개월간)
- 순회국 : 독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그리스
- 참가 선수단 명단
감독 : 황영갑
선수 : 권 . 금 이정원
플라이급 임창섭
밴 텀 급 남학현
페 더 급 이종현
라이트급 김병철
웰 더 급 김태형
미 들 급 정주석
해 비 급 김제경

매년 국내의 명문대학팀 및 국가대표급 선수들을 초청, 유럽 태권도 선수단과의 친선경기를 주선해온 독일 뮌헨 고의민사범이 금년에 국군대표인 상무팀을 초청함으로써 한달여간의 긴장정으로 유럽 5개국 순회 경기를 다녀왔다. 우리 선수단은 1월 9일 오후 2시 30분에 독일 항공사인 루프트한자 719편으로 푸랑크푸르트를 경유하여 뮌헨에 한국시각으로 10일 새벽 6시에 도착하게 되었다. 한국과 8시간의 시차가 나는 독일은 같은날 저녁 10시였다. 공항에는 고의민 사범 부부와 제자들이 함께 나와 반갑게 맞아 주었다.

10일 아침일찍 고사반대에서 식사를 마친 우리 선수단은 뮌헨에서 150km 떨어진 우리나라 국군체육부대와 같은 독일체육



▲ 독일 뮌헨 시청 앞에서

부대가 있는 작은 도시로 약 한 시간 후에 도착하여 호텔에 여장을 풀고 오후 7시에 독일군팀과의 첫경기를 가졌다. 전날 도착해 피로가 풀리기도 전에 경기를 가져서인지 선수들의 피로한 모습을 느낄 수 있었지만 군특유의 정신력과 패기를 발휘하여 중주국 태권도를 보고 싶어하는 800여 관중들의 환호와 박수를 받았다. 경기결과는 6승2패로 승리했으며 태권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바인플러 시장으로부터 찬사를 받았다. 또 독일군 체육부대 스트릭 중령으로부터 사랑의 종을 기념품으로 받고 답례로 우리 국군체육부대장의 문진을 전달하였다.

독일체육부대에 6승2패

11일, 뮌헨으로 다시 돌아온 선수단은 며칠간의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되었으며 뮌헨 올림픽 스타디움과 그외 관광명소를 관람하고 저녁에는 고의민 사범의 제자집에 초대를 받아 저녁식사를 같이 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독일의 일반가정의 겸손함과 자연스러움, 화목함을 느낄 수 있었다.

16일, 충분한 휴식을 취한 우리 선수단은 독일 대표팀과의 경기를 가졌다. 식전행사로 역대 국가대표들로 구성된 우리선수단이 시범을 펼칠때는 2000여명의 관중들이 열광하였으며 유럽태권도 연맹회장인 “하인즈 막스”씨와 총영사님께서도 참석하였다. 경기는 복싱링을 설치



▲ 네덜란드 아인트호벤 체육관

하고 링위에서 게임을 진행하였으며 처음으로 전광판을 사용하여 경기를 치르었는데 이날 경기는 7승 1패로 승리하였다.

17일, 사운드 오브 뮤직과 모짜르트 생가로 유명한 예술의 도시인 “오스트리아 잘스부르크”의 작은 시립체육관에서 우리는 세번째 경기를 가졌다. 그곳에는 700여명의 태권도를 사랑하는 관중이 운집해 있었다. 먼저 시범을 보이고 환호하는 관중들에게서 힘을 얻은 선수들은 한층 높은 수준의 경기기술로 경기에 임했고 오스트리아 선수들은 많은 실전경기를 갖지 않아서인지 경기운영면에서 미숙하였다. 그러나 태권도에대한 열의가 대단히 크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18일에는 “아이슬링겐”에서 2차례의 태권도 세미나를 가졌으며 이틀후인 20일에도 벨기에 브뤼셀에서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이곳 실내 체육관에는 260여명의 태권도 수련생이 도복을 입고 구령소리에 맞춰 태권도를 열심히 수련하며 하나라도 더

배우려는 열의가 대단하였으며 우리 선수단 또한 중주국 사절단이라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지도해 주었다. 이튿날 우리 선수단은 네덜란드로 향하는 길에 브뤼셀에 유명한 「오줌싸는 아이」 동상과 석조로 만들어진 대법원을 관람하고 “아인트호벤”에 도착하였다.

22일, 아인트 호벤에 도착한 우리선수단은 이곳 실내체육관에서 네덜란드 대표팀과 경기를 하였다. 경기를 치른 실내체육관은 오는 8월에 월드컵 게임이 치어질 장소라고 하는데 경기장 분위기와 경기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국제경기를 방불케했으며 경기장에는 1,500여명이 넘는 관중이 입장하였으며 선수들도 올해의 국가대표들로 구성이 되어 실력도 만만치 않았다. 경기의 결과는 6승 2패로 우세했다. 네덜란드 선수들의 빠른 몸놀림과 가끔씩 선보이는 상단기술을 보고 놀라움을 느낄 수 있었다. 한국 선수들도 더욱 긴장, 분발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기대이상의 네덜란드팀

23일, 네덜란드를 떠나 전 국가대표 김철환 사범이 거주하는 독일 아켄에 도착하니 김철환 사범의 가족이 반갑게 맞아 주었다. 우리는 이곳에 여장을 풀었다. 이튿날 우리선수단은 김철환 사범과 북독협회가 주최하는 에센경기에 임하기 위해 에센으로 향했다. 에센 실내체육관에서 약 1시간 가량의 간단한 세미나를 마치고 경기는 저녁 8시에 시작됐다.

베를린에 있는 전국가대표 사범단인 표락선 사범과 강정길 사범 그리고 김철환 사범과 관원들의 시범에 800여 관중은 환호하였으나 경기는 우리 상무 선수단의 월등한 경기에도 불구하고 편파적인 심판 판정에 의해 3경기를 넘겨주어 5승 3패의 전적을 남기게 되었다. 나중에는 독일 선수의 손이 올라가면 관중들이 야유를 보내기도 했으며 우리 선수단을 응원해 주는 관중들의 깨끗한 매너가 엿보였다.

25일, 우리는 독일 하노바에 도착하여 이범희 사범의 환영을 받았으며 저녁에는 이 사범의 체육관에서 태권도의 기초에 대한 세미나도 가졌다.

26일, 독일의 항구도시인 함부르크에 도착한 우리는 함부르크 실내체육관에서 6차전 경기를 가졌다. 서영철 사범과 신부영 사범이 경기를 진행해나갔으며 1200여명이 넘는 관중들에는 대부분이 함부르크 대학 학생들이 관전하는 등 태권도에 많은

관심을 볼 수 있었으며 이날 이수환 총영사와 주협회장도 참석하였으며 경기 결과는 7승 1패를 기록했다.

이튿날 우리 선수단은 오전에 세미나를 갖고 다음날 함부르크에서 300km 떨어진 베를린으로 향했다.

29일, 독일에서의 마지막 경기인 베를린 팀과의 경기를 저녁 8시에 시작하였다. 1000여명이 운집한 베를린 실내체육관은 우리 한국 교민들과 한국 유학생들이 나와 많은 응원을 보내주었다. 상대인 베를린 선수의 대부분은 터키 국적을 갖고 있는 선수들로 실력은 다소 뒤떨어지지만 게임에 대한 승부근성은 대단하였다. 경기는 우리팀이 6승 2패로 승리를 하였다. 다음날 우리 선수단은 예전의 동독과 서독의 국경이었던 베를린 장벽이 있던 자리에 가서 기념 사진을 찍었다. 장벽이 있던 자리에는 도로가 생겨서 새로이 단장하였으며 동독사람들도 많이 볼 수 있었다.

31일, 선수단은 다시 버스로 아우토반을 달려 8시간만에 뮌헨에 도착했다.

기술, 전술개발에 더욱 노력해야

2월 1일, 우리 선수단은 아침 비행기로 최초의 올림픽 개최지인 그리스 아테네로 향했다. 올림픽 스타디움과 아크로폴리스를 관광하고 3일 우리는 그리이스 대표팀과 경기를 가졌다. 그

리이스는 지난 91년 제10회 세계 선수권 대회를 이곳에서 개최한 후 태권도에 상당히 인기 있는 종목이 되었다고 한다. 태권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활성화가 이루어지면서 경기장에는 2000여명의 관중이 모여들어 태권도에 대한 인기를 증명해 주었고 두개의 방송사에서는 시범과 경기를 생방송으로 중계 방송했다. 이날 경기에서 라이트급의 김병철 선수는 '92 바르셀로나 올림픽 금메달 리스트답게 멋진 K.O승을 보여주었다. 그리이스와의 경기는 7승 1패로 우세했으며 경기가 끝난후 관중들의 사인공세, 사진촬영등 성황리에 경기를 마치게 되었다.

우리 선수단은 5개국 8개도시를 순회하면서 중주국 태권도를 민간외교 차원으로 확대, 보급시키면서 유럽태권도의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태권도가 올림픽의 정식 종목로 채택될 수 있도록 많은 홍보와 진면목을 선보였다는 점에서 자긍심을 느낀다.

유럽 각 지역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태권도의 정신과 기술을 지도하는 많은 한국인 태권도 사범들의 노고가 있었기에 오늘날과 같이 태권도의 세계화가 이룩될 수 있었다고 본다.

끝으로 한국의 태권도가 중주국으로서 계속적인 우월성을 유지하려면 유럽 선수들의 좋은 신체조건을 극복할 수 있는기술 개발 및 전술개발에 지도자 선수 모두 배전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한민수**

모니터는 내려보는 위치로

곽동수 / 숭실대 강사



얼마전 가정용 게임기 제조업체로 잘 알려진 일본의 닌텐도사가 자국에서 판매되는 게임기에도 '소프트웨어로 인해 간질 등의 발작을 일으킬수 있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부착하기로 했다는 뉴스를 들은 적이 있다.

이미 외국에 판매되는 제품에는 이와 유사한 경고문을 부착 판매하고 있다는 닌텐도사는 전세계에 걸쳐 수많은 사용자들을 확보하고 있는 업체로, 미국에 프로야구단을 가지고 있을만큼 탄탄한 회사로 알려져 있다. 뿐만 아니라 전세계에 고객지원회사를 설립하여 24시간 전화상담체제를 갖추고 사후지원에도 애쓰고 있는데 여러가지 면에서 본받을 만한 점이 많은 회사라고 하겠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전자오락을 국민학생들, 혹은 철이 덜 든 청소년들이나 즐기는 말초적 오락 정도로 간주하고 도외시해 왔지만, 미국, 일본 등의 선진국에서는 꾸준히 전자오락을 개발하고 실력을 쌓아 세계시장을 주름잡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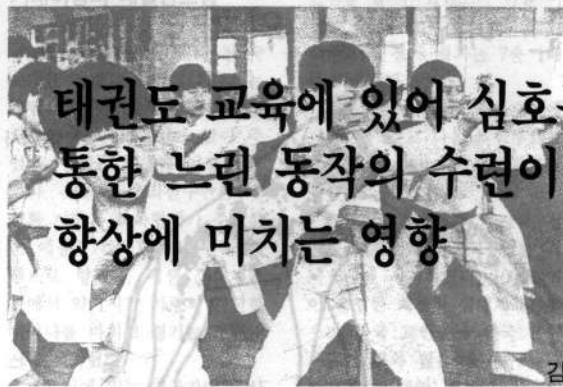
전자오락의 유해, 무해론을 주장하기에 앞서 전자오락을 하는 사람이 상당수라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청정함양에 도움이 되고 즐거움도 주는

그런 게임을 자체개발하는 능력을 키워야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뒤늦은 후회도 있다.

'닌텐도 게임과 간질 우려'에서 생각나는 것은 컴퓨터를 어떻게 다루고 관리해야 하는냐는, 건강과 관련된 또 다른 측면이다. 그 첫째는 키보드를 일반 책상과 같이 높은 곳에 두면 손목에 무리가 생기므로 되도록 전용책상을 사용하거나 책상 서랍을 빼서 조금이라도 낮게 놓고 써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는 모니터를 아래로 내려다 보는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는 점이다. 흔히 모니터를 컴퓨터 본체 위에 두고 올려다 보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쉽게 피로감을 느끼게 한다. 따라서 책상위에 본체를 올려놓아야 한다면 모니터와 본체를 분리해서 나란히 놓는 방법을 택하는 것도 좋겠다.

셋째는 모니터의 밝기를 조정하자는 것으로 많은 사용자가 지나치게 모니터를 밝게 해 놓고 사용하는듯하다. 특히 보안경을 부착한 모니터의 경우 이런 일을 더 흔히 볼 수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사용자가 모니터를 잘 담지 않아 뿌옇게 보이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



한글로 된 이 책은 1953년에 출판된 이래로 지금까지도 꾸준히 팔리고 있다. 이 책은 1953년에 출판된 이래로 지금까지도 꾸준히 팔리고 있다.

심호흡리듬 태권도에 접목

‘집중력 키워준다’

대성고 체육교사 김석려 씨 논문발표

심호흡과 함께하는 느린 태권도 동작의 수련체계는 수련자들의 집중력을 크게 향상시켜준다는 연구 논문이 나와 태권도계의 관심을 끌고있다.

이러한 사실은 서훈 대령은 고
교 훈장(勳章)인, 김충현(金忠顯, 38)가 최근 안보훈장위원회에 발
탁한, 「대한민국헌정 50주년 기념
훈장」을 수여한 사실이 확인
되었다. 이 사실은 미군정기
안보훈장위원회가 1954년 10월 15일

리듬에 맞춰 동작을 유연하고 논
리계, 손끝의 움직이는 선을 따라
자연을 찾아가 정신을 집중시키도
특한 김교사가 개발한 독특한 것
이었다.

수련 1개월 후에 실시한 정신진찰과 검사에 30가지의 물건과 우리말 단어를 30초동안 보게한 뒤 물건의 이름과 단어를 답안지에 2분간 작성토록 했다.

모든 것의 시작은 이로부터

게 도움이 된다는 결론으로 미루어볼때 태권도, 관련기관이나 연구단위에서는 직업능력향상과 기억력 제고를 위해 교육적으로 가치 있는 태권도지도 프로그램을 개



1개월간 수련실시결과 기억력성취도 18%증가

해묵은 논쟁에서 밝혀진 것.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동방 예의지국의 철학사상을 바탕으로 많은 어
려움을 겪으면서 발전해 온 우리 민족 고유의 지

60%의 성취도를 나타냈던 수련생 집단은 1개월 수련후에는 평균 48%의 성취도를 보여 수련전보다 18.40%의 향상된 성적을 나타냈으며 대조군(비수련생군)은 처음 목적 평균 36.27%, 1개월후에 평균

발, 무릎, 허리에 대 노력해야 한

통무예인 태극
거리이다.

90년 '어린이 오늘날 스포'

인·학술적 연구
한 시민을 육성

집중력·기억력 향상시킨다

非수련자보다 평균 20% 학습능률을 높여



○술선연 교사

해 가고 있는 실정이다.

태권도 관계 기관에서도 종래의 경기 중심적 행정 일변도에서 벗어나 사회 체육의 하나로 정착된 태권도 도장 수련생들에게 창의적인 새로운 태권도를 선보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줌으로써 앉아서 바라보는 시범에서 직접 시범에 참여하는 방법이 앞으로 태권도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는 앞으로 수련생 개개인의 잠재력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이며, 더불어 모든 수련생들에게 연구하고 생각하는 자세로 수련에 임하게 하여 전인적 인격 형성에 목적을 두고 있는 태권도의 수련 목적에 한발 더 다가가는 좋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때를 맞추어 볼 연구자는 기존의 태권도 교육의 절도와 강인함을 주로 하는 것에 변화를 주어 부드럽고 유연하게 하되 심호흡과 함께 음악적 리듬에 따라 조화를 이루어 느리게 시행하는 태권도 수련이 수련생들의 집중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심호흡과 함께 느린 태권도 동작의 수련 체계는 기존의 선수들과 어린이 중심의 수련에서 일반 성인 및 노약자에 이르기까지 수련 가능케 하며 더불어 건강 증진을 통한 생활의 활력과 더불어 자신감을 줄 수 있는 태권도 교육의 새로운 장을 열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의 전통 무예인 태권도 정신을 계승하고 국민 생활 체육의 하나로 발전시켜 전 국민의 몸과 마음이 하나되어 배달 민족의 슬기와 지혜를 재창출하여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서울 D중학교 2학년 재학생 100명 중 실험군 50명과 대조군 50명의 두 집단을 선정하였다.

2. 연구일정

본 연구는 1991년 4월부터 1992년 10월까지 약 18개월에 걸쳐 연구되었으며 그 내용은 (표1)와 같다.

표 1. 연구 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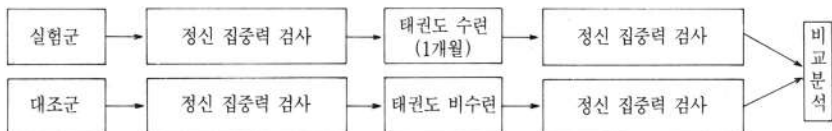
연구일정	연구 내용 및 절차
1991. 4~ 6	연구 계획 수립
1991. 7~ 9	태권도 동작의 체육학적 분석
1991.10~12	심호흡과 태권도 동작에 접목 연구
1992. 1~ 3	심호흡에 의한 태권도 동작 체계 완성
1992. 1~ 7	음악 선정 작업
1992. 8~ 9	수련생 지도 및 정신 집중력 실험
1992.10	결과 분석 및 고찰

3. 연구방법

1) 정신 집중력 검사는 실험군과 대조군 두 집단을 비교 분석하였다.

2) 실험 방법은 실험군에는 1일 1시간씩 1개월 간 심호흡에 의한 태권도 동작을 느리게 수련한 전, 후에 정신 집중력 검사를 실시하였고 대조군에는 실험군과 같은 시기에 정신 집중력 검사를 하였으며 실험의 틀은 다음과 같다.

(그림 1) 실험의 틀



3) 태권도 수련의 내용과 특징

① 태권도의 35가지 동작을 연결하여 자연의 소리인 물소리, 새소리 등을 접목시킨 부드러운 음악과 함께 행함으로써 정서 함양과 심신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게 구성하였다.

② 각 동작마다 4~8박자의 리듬에 맞춰 심호흡과 함께 조화를 이루어 행할 수 있도록 동작을 구성하였다.

③ 신체 각 부위에 유연성을 주기 위해 태권도 동작에 스트레칭 동작을 접목시켜 구성하였다.

④ 신체적으로 강한 힘을 기르기 위해 각 동작마다 정적인 힘을 활용하여 느리게 행하면서도 힘 있게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⑤ 손끝의 움직이는 선을 따라 시선의 방향을 움직이게 하여 정신을 집중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⑥ 음악의 리듬에 맞춰 심호흡과 더불어 행하는 태권도의 각 동작은 움직이는 시선과 함께 조화를 이루어 아름다운 육체적 표현을 나타낼 수 있게 하여 예술적 감각을 돋보이게 하였으며, 아울러 몸과 마음이 하나되어 정신을 집중할 수 있을 때 수련의 효과와 증진을 도모할 수 있게 구성하였다.

4) 태권도 수련동작 내용과 순서

- ① 단전호흡
- ② 태권도의 준비동작
- ③ 옆으로 날개펴기
- ④ 앞으로 통밀기
- ⑤ 위로 황소막기
- ⑥ 좌우로 외산을 막기
- ⑦ 좌우로 손날 외산을 막기
- ⑧ 손날 외산을 막고 옆으로 스트레칭
- ⑨ 바탕손 몸통밀기
- ⑩ 바탕손 얼굴밀기
- ⑪ 얼굴 외산을 막고 좌우로 스트레칭
- ⑫ 손날 외산을 막고 좌우로 스트레칭
- ⑬ 좌우로 손날 몸통막기
- ⑭ 일어서서 모아서기 좌우로 손날 몸통막기
- ⑮ 좌우로 손날 얼굴막기
- ⑯ 360° 돌아서 좌우로 손날 몸통막기

- ⑰ 앞굽이서기 바탕손 몸통막기
- ⑱ 바탕손 몸통밀고 위로 들어올리기
- ⑲ 좌우로 태산밀기
- ㉑ 당겨 턱치기 스트레칭
- ㉒ 좌우 외산을 막기
- ㉓ 좌우 손날 외산을 막기
- ㉔ 좌우 손날 외산을 막고 옆구리 스트레칭
- ㉕ 꼬아서기 손날 외산을 막기
- ㉖ 모아서기 보주먹
- ㉗ 산틀 막기
- ㉘ 좌우 몸통막기
- ㉙ 아래 막기
- ㉚ 몸통지르기
- ㉛ 준비서기 이어 헤쳐막기
- ㉜ 좌선 자세
- ㉝ 옆으로 날개펴기
- ㉞ 앞으로 통밀기
- ㉟ 위로 황소막기
- ㊱ 좌선 심호흡

5) 정신 집중력 검사 방법

정신 집중력 검사는 30가지의 물건과 우리말 단어를 각각 30초 동안 보게 한 뒤 물건의 이름과 한글 단어를 기억하여 답안지에 2분 안에 작성하게 하였으며 그 내용은 (표2), (표3)과 같다.

III. 연구 결과 및 고찰

1. 실험군의 집중력 검사 비교분석 결과

1) 수련전 검사 결과

(표4)에서와 같이 수련생 50명이 총 3000점 만

(표 2) 물건

안경집	호치키스	카세트테이프	술가락	머리빗
성냥갑	안경테	스카치테이프	삼푸	칼
병따개	송곳	목도장	볼펜	줄자
탁구공	담뱃대	1회용주사기	매직펜	거울
호각	컴퍼스	성경책	필름통	열쇠
가위	운동화끈	동전	뱃지	콘크리트못

점에 888점을 얻어 개인 평균은 30점 만점에 8.88

(표 3) 한글 단어

마을	양호실	나팔꽃	전화	여덟
체조	선생님	태극기	달팽이	비디오
공식	마라톤	점심	경찰서	돌고래
자가용	방정식	태권도	아침	무궁화
찰흙	에어컨	급하기	사격	공기
인사	소나무	피아노	나누기	양궁

도덕:5 국어:5 수학:5

체육:5 문화:5 대자연:5

점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30점을 100%로 환산했을 때 개인 평균 29.60%의 성취도를 나타냈다.

2) 1개월 수련후 검사 결과

(표4)에서와 같이 1개월 수련 후에는 총 1,390 점을 얻어 개인 평균 13.90점을 얻은 것으로 나타나 개인 평균 48.00%의 높은 성취도를 보였다. 이는 수련전 보다 18.40%의 집중도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검사 분석 과정에서 나타난 것을 보면 50명 전원의 집중력이 향상된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3) 통계적 검증

Paired T-test 결과 실험전 개인 총평균은 17.74±3.82이고 실험후에는 21.80±4.66으로 나타나 실험군에서는 실험전에 비해 실험후에 집중력에 대한 점수가 $p<0.05$ 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이 결과로 볼 때 심호흡과 음악적 리듬에 의한 태권도의 느린 동작 수련이 정신 집중력을 향상 시키는 것으로 생각된다.

2. 대조군의 집중력의 검사 비교분석 결과

1) 1개월 전 검사 결과

(표4)에서와 같이 비수련생 50명이 총 3000점 만점에 1088점을 얻어 개인 평균은 30점 만점에 10.88점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30점을 100%로 환산했을 때 개인 평균 36.27%의 성취도를 나타내 수련생 보다 조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1개월 후 검사 결과

(표4)에서와 같이 집중력 검사 후 1개월 뒤에 동일 조건에서 같은 방법으로 재검사를 실시한 결과 총 1074점을 얻어 개인 평균 10.74점을 얻어 35.80%의 성취도를 보여 1개월 전과 비교해서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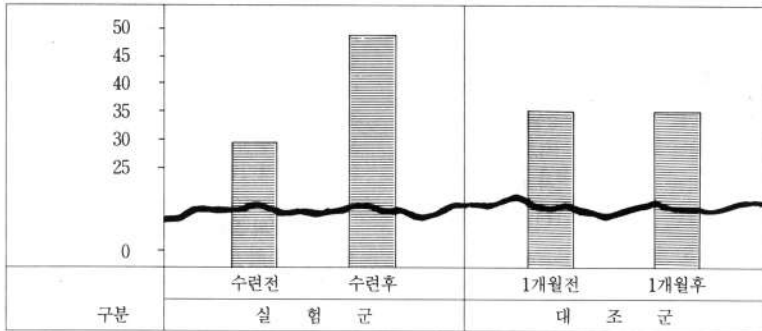
3) 통계적 검증

Paired T-test 결과 대조군에서, 1개월 전에는

(표 4) 실험군과 대조군의 기억력 검사 비교표

	실험군(50)						대조군(50명)					
	수련전			1개월 수련후			1개월전			1개월후		
	한글 단어 집중력	물건 집중력	계	한글 단어 집중력	물건 집중력	계	한글 단어 집중력	물건 집중력	계	한글 단어 집중력	물건 집중력	계
총득점 (1500점 만점)	424	464	888	727	663	1390	487	601	1088	542	532	1074
개인 집중력 평균점수(30점 만점)	8.48	9.28	8.88	14.54	13.26	13.90	9.74	12.02	10.88	10.84	10.64	10.74
개인집중력 평균% (30점 : 100%)	28.27	30.93	29.60	51.80	42.20	48.00	32.47	40.07	36.27	36.13	35.47	35.80

(그림 2) 실험군과 대조군의 집중력 향상 비교표



개인 총평균이 21.76 ± 3.82 이고 1개월 후에는 48 ± 4.1 로 나타나 집중력 점수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볼 때 $p > 0.05$ 이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IV. 결론 및 제언

1. 결론

서울 D중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학생 100명을 선정하여 각각 50명씩 수련 집단과 비수련 집단으로 나눈 뒤 동일한 조건에서 집중력 검사를 실시하였다. 그 후 비수련 집단은 평범한 학교 생활을 하게하고 수련 집단은 심호흡에 의한 느린 태권도 동작의 수련을 하루 한시간씩 1개월간 본 연구자가 직접 지도한 다음 같은 방법으로 정신 집중력 검사를 실시하여 두 집단을 비교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수련생 집단은 수련전에 비해 정신 집중력이 평균 18.40%의 높은 신장률을 나타냈으나 비수련생 집단은 한달 전과 후에 검사한 결과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 집중력의 향상도가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수련생 집단은 검사 자료에 의하면 50명 전원이 최저 5%에서 최고 35%까지의 집중력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2. 제언

태권도 교육에 있어서 음악적 리듬에 맞춰 심호흡을 통한 느린 동작의 수련이 정신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결론을 미루어 볼때 태권도 관계기관이나 연구 단체에서는 학업 능력 향상을 위해 기억력이나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되며 교육적으로 가치성 있는 태권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널리 보급되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김석련, 1990. 어린이 태권도 교육이 I.Q와 학업 성적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학회지.
2. 김석련, 1988. 스포츠 맛사지가 근지구력에 미치는 영향(태권도 선수들을 중심으로). 태권도 연구 논문집 제1호.
3. 강신복, 1992. 어린이 태권도 프로그램의 구성 원리와 지도방법, 태권도 계간지, 제81호.
4. 정찬모, 1988. 태권도 선수의 체력평가 기준치 설정에 관한 연구 태권도 연구 논문집, 제1호.
5. 이규형, 1988. 태권도 수련이 어린이 정신교육에 미치는 영향. 태권도 연구 논문집, 제1호.
6. TAE-YUN Kim, 1991. Seven steps to inner power, NEW World Library. San Rafael, Californai, U.S.A.

태권도의 기본 스텝

손 천 택/ 인천대학교 경기지도학과 교수
손 제 열/ 인천대학교 경기지도학과 강사·코치

I. 서 언

무도적 가치를 추구해 오던 민족 무예의 태권도가 해방후 가속화된 서구 스포츠 유입의 영향으로 경쟁적 스포츠로서의 국제적 인정을 받게 됨에 따라 스포츠로서의 태권도 수행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가 다각도에서 이루어져 왔다. 그간의 태권도에 관한 연구를 개관할 때 태권도의 사적 측면, 사회학적 측면, 심리학적 측면, 의학적 측면, 역학적 측면, 평가적 측면, 훈련적 측면 그리고 교육학적 측면에서의 연구들은 활발히 전개되어 왔으나 태권도학의 핵이 되는 태권도 기술 자체에 관한 연구가 크게 부족되어 이론과 실제 간에 여러가지 부조화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그간 비디오를 사용하여 수집한 자료를 시각적으로 분석하는 記述·分析的 연구를 통해서 태권도의 기본 기술이나 그것의 사용 범위 또는 특징이나 경기력과 관련된 효과성에 관한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으나 태권도 경기의 중요한 구성요소인 스텝에 관한 연구는 크게 시도되지 않았다. 태권도 스텝과 관련된 두세편의 논문들이 발표되긴 하였지만 연구자마다 사용하는 용어나 분류기준이 달라 독자들에게 정확한 의미를 전달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지도자와 지도자, 지도자와 선수 그리고 선수와 선수 간의 정확한 의사소통에도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 기본 스텝의 응용을 하나의 새로운

스텝으로 분류하는 오류까지 범하게 되어 태권도 스텝의 분류 체계에 혼란을 야기 시키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태권도 스텝에 관해서 지금까지 발표된 논문들을 철저히 분석하고, 태권도 경기에서 사용되고 있는 스텝들의 분류를 위한 새로운 체계를 파악 함으로써 태권도 스텝의 체계적 연구와 태권도 기본 스텝의 효과적인 지도를 자극하고 유도하는데 있었다.

II. 태권도 경기에서의 스텝

태권도는 규정된 경기장 내에서 정해진 규칙에 따라 손과 발을 주무기로 다양한 공방 기술로 상대방보다 우세 하거나 많은 득점을 획득하는 선수가 승자가 되는 경기이다(이승국, 1986). 구체적으로, 태권도 경기는 공격 기술, 방어 기술 그리고 그밖의 기술에 의하여 이루어 진다. 공격은 주로 손을 사용하는 주먹 기술이나 발을 사용하는 차기 기술에 의하여 이루어 지며, 방어는 막기와 피하기로 이루어 지고, 막기는 주로 팔로써 상대 선수의 차기 기술을 방어하는 경우와 발로써 상대의 차기 기술을 차단하는 두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또다른 형태의 방어 기술은 피하기 이다. 피하기는 제자리에서 몸을 움직이거나 자세를 고쳐 잠음으로써 피하는 방법과 이동 하면서 피하는 방법이 있다. 제자리에서 몸을 움직여 피하는 기술의 전형적인 예는 상대가 얼굴을 공격해 올 때 고개를

들려 그것을 피하는 경우이다. 이동하면서 피하는 기술은 몸을 다른 위치로 이동하여 상대 선수의 공격권에서 벗어나는 기술이다. 이동하여 공격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공격 선수에게로 이동하거나 그로부터 멀어져야 하며, 이 때 주로 사용되는 것이 스텝이다.

그밖에 태권도 경기에서 사용되는 중요한 기술로서는 상대 선수를 기만하거나 견제의 기능을 하는 페인트와 점프가 있다. 페인트(feint)는 제자리에서 팔이나 다리 또는 몸으로 속임 동작을 하는 경우와 한발을 들었다가 제자리에 놓는 경우의 두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다. 또다른 독특한 기술 형태로는 이동 하면서 페인트 하는 경우이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 두발을 단순히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는 것은 페인트이며, 이동 페인트는 스텝에 의한 페인트이므로 목적상의 분류로서는 페인트이지만 기능적으로는 스텝으로 분류될 수 도 있다. 따라서, 수행 목적의 관점에서 페인트를 하나의 스텝으로 분류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다. 페인트만 상대 선수와의 대처 상태에서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 또한 신속한 공격을 위한 예비 동작으로 수행되는 하나의 독립된 경기 기술이다. 한편, 점프는 “발과 다리의 근육운동으로 발이 지면에서 자유스럽게 튀어오르는 것”을 말한다. 발이 위로 튀어올라 이동할 수 있으므로 점프와 스텝이 하나의 결합된 형태로 나타날 수는 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점프는 스텝과 다른 하나의 독립적인 동작 형태이며 결코 스텝의 한가지 유형이 될 수 없다.

태권도 경기에서 스텝은 중요한 방어기술인 동시에 효과적인 공격을 위한 예비 기술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페인트나 점프가 스텝에 포함될 수 없으며, 그것은 스텝의 사전적 의미에서도 분명히 확인되고 있다. Webster 사전에 의하면 스텝은 “발을 들어 다른 곳에 놓음으로써 이루어지는 전진 운동”이다. 여기서 전진이란 Advance라는 뜻으로서 반드시 앞으로의 이동 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III. 태권도 스텝에 관한 연구

태권도 경기에서 스텝은 상대의 공격을 피하거나 사전에 상대의 기술을 저지 시킴으로써 공격력을 약화 시킬 뿐만 아니라 상대의 약점이나 허점을 노출 시켜 효과적인 공격을 가능하게 한다. 더군다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훈련 방법의 개발로 태권도의 경기 내용이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단순 공격에 의한 득점이 날로 어려워지고, 전후좌우의 신속한 이동과 몸놀림을 통한 기회 포착이 불가피한 오늘날의 태권도 경기를 생각할 때 태권도 경기에서 스텝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즉, 고정된 자세에서 단일 공격에 의한 득점의 획득이 점점 어려워짐에 따라 태권도 경기에서 스텝이 더욱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이처럼 태권도 경기에서 스텝이 중요하게 인식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태권도 학자들만이 스텝에 연구적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그 결과 일선의 태권도 지도자들이 논리적 근거에서 분류된 스텝을 체계적으로 지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행히 최근 이승국(1986), 최영렬(1989), 김영인(1991) 등에 의해서 태권도 스텝이 분류되고, 그것을 기초로 실제 경기를 기술적으로 분석하는 선도적 연구가 이루어져 이 분야에 대한 연구적 노력을 촉진하고 있다.

최영렬(1989)의 경우 태권도의 스텝을 사용 목적에 따라 공격형 스텝과 수비형 스텝으로 분류하고 그것을 다시 신체 이동에 따라 전진 스텝, 후진 스텝, 사이드 스텝, 제자리 스텝, 점프 스텝으로 분류하였다. 최영렬(1989)분류의 특징은 점프를 포함 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점프를 스텝으로 보아야 하는 중요한 이유로서 첫째, 점프가 동작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고, 둘째, 발을 이용한 움직임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결국, 최영렬의 분류는 스텝과 점프의 미묘한 차이를 점프를 스텝에 포함 시킴으로써 해결하고 있다. 그는 이러한 기본적인 분류 기준에 근거하여 스텝을 다음과 같이 세분화 하였다. ① 한 발이 축이 되어 움직이는

스텝, ②두 발을 동시에 옮기는 스텝, ③두 발을 교차해서 움직이는 스텝, ④한 발을 먼저 옮기거나 페인트를 주고 뒷발을 옮기는 스텝, ⑤발을 끌여주는 스텝.

한편, 김영인(1991)은 스텝을 제자리 스텝, 발 바꾸기 스텝, 전진 스텝, 1보 전진 스텝, 후진 스텝, 1보 후진 스텝, 빠른발 스텝, 끌어 스텝, 좌우측 발주기 스텝, 좌우 앞발커트 스텝, 전진 스텝, 한발 뒤로빼기 스텝, 점프스텝 스텝의 14가지로 분류하여 각 스텝과 관련된 공격 회수와 득점 내용을 조사 하였다. 김영인에 의한 스텝 분류는 정당한 근거나 준거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다만 태권도 경기에서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스텝들을 임의 분류하고 있다.

이승국(1986)은 태권도 선수들이 경기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스텝의 유형 및 동작을 12가지로 분류 한 다음 각 스텝과 연결된 기술 분류를 분석 하였다. 그가 주장하는 12가지 주요 스텝 및 동작은 발바퀴 스텝, 전진 스텝, 1보 전진, 후진 스텝, 1보 후진 스텝, 빠른발 스텝, 끌어 스텝, 앞발주고, 뛰어 앞발주고, 앞발로 cut하고, 좌우뒷발 뒤로 180도 돌아, 찬발 뒤로 빼서, 빠지면 서 었다. 이승국(1986)의 분류 역시 김영인의 분류와 마찬가지로 어떤 분류 근거에 의하여 스텝을 분류 하였다기 보다는 경기 내용을 기술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태권도 경기에서 자주 발생하는 스텝들을 임의 분류하였다.

IV. 태권도 스텝 분류를 위한 새로운 도 전

많은 스포츠에서 스텝(step) 또는 “밟기”는 중요한 경기 기술로서 학습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타당한 분류 기준에 근거하여 분류되고 있다. 배구에서 스텝은 이동 방향에 따라 전진 스텝, 후진 스텝, 사이드 스텝으로 분류된다. 이 때 발의 움직임 내용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다만 이동 방향이 분류의 중요한 근거가 된다. 전진 스텝은 발

에 접근하기 위해서 전방으로 이동하는 것을 말하며, 후진 스텝은 볼과의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뒤로 이동하는 것을 말하고, 사이드 스텝은 옆으로 벗어나는 볼을 따라잡기 위해서 좌, 우로 이동하는 스텝을 말한다. 사이드 스텝은 다시 발의 움직임 형태에 따라 한발에 다른 한발이 따라가는 스텝과 한발 넘어서 다른 한발이 이동하는 스텝으로 분류된다.

다른 스포츠 기능 역시 분명한 분류 근거에 의해 기술이 분류된다. 축구의 기초 기술은 일반적으로 사용 목적에 따라 킥, 헤딩, 드리블, 트래핑, 태클로 분류되며, 킥 기술은 다시 발의 사용 부위에 따라 발등을 사용하는 인스텝 킥, 발의 안쪽을 사용하는 인사이드 킥, 발의 바깥쪽을 사용하는 아웃사이드 킥, 발의 뒷쪽을 사용하는 힐 킥으로 분류되고, 이러한 기초 기술의 발전된 형태나, 상황에 적합하게 독특한 형태로 결합되어 나타나는 기술이 응용 기술이다.

예를 들어 논 스톱 킥은 선수에게 다가오는 볼을 트래핑하지 않고 바로 패스하거나 슈팅하는 킥을 말하며 인스텝 킥, 인사이드 킥, 아웃사이드 킥, 힐 킥 중 어떤 킥으로도 가능하다. 결국 볼을 트래핑에 의해 멈추었다가 차는 킥을 스톱 킥이라고 한다면 멈추지 않고 차는 킥을 논 스톱 킥이라 한다. 여기에서 논 스톱 킥을 하나의 새로운 축구 기술로서 분류하기는 어렵다. 축구의 기초 기술로서 킥의 분류는 발의 사용 부위에 의한 분류이며 응용 기술로서 논 스톱 킥은 볼의 멈춤 여부에 의해서 분류이다. 전혀 다른 준거로 분류된 킥을 같은 분류 체계에 포함 시킬 수는 없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태권도 스텝에 관한 연구들을 면밀히 분석해 보면 각 스텝의 분류 근거가 합리적이지 않을 뿐만아니라 기본 스텝과 응용 스텝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기본 스텝의 응용 형태나 두가지 이상의 스텝이 독특한 형태로 결합되어 나타나는 스텝을 하나의 새로운 스텝으로 분류하는 모순을 범하고 있다.

한 예로서 최영렬(1989)의 스텝 분류 체계를

살펴보면, 그는 스텝의 종류를 크게 공격을 목적으로 밟는 공격형 스텝과 수비를 목적으로 밟는 수비형 스텝으로 분류하였다. 즉, 태권도 스텝을 사용 목적에 따라 공격형 스텝과 수비형 스텝으로 분류하고 그것을 다시 신체의 이동 방향에 따라 전진 스텝, 후진 스텝, 사이드 스텝, 제자리 스텝 그리고 점프 스텝으로 분류 하였다. 그런데 그의 스텝 분류 도표를 자세히 살펴보면 발의 형태적 움직임에 근거한 분류를 사용 목적에 따라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목적에 따른 분류의 하위 분류로서 형태적 움직임을 분류하였을 때 일부 공격형 스텝이 분류 체계속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2보 전진 스텝은 하나의 새로운 스텝이라기 보다는 상대 선수와의 거리에 따라 연속적으로 밟게 되는 일보 전진 스텝의 반복된 결과이다. 이것은 새로운 형태의 스텝이라기 보다는 특정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상대를 따라잡기 위해서 밟게 되는 기본 스텝의 확대에 불과하다. 1보 전진 스텝과 2보 전진 스텝은 다른 목적으로 밟게 되는 같은 형태의 스텝이다.

태권도 스텝은 발의 사용 형태에 따라 즉, 스텝을 밟는 순간 한발에 중심을 두고 다른 한 발을 움직이느냐 또는 두발을 동시 또는 거의 동시에 움직이느냐에 따라 한발 스텝과 두발 스텝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한발 스텝은 다시 축이 되는 발을 중심으로 다른 한발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곡선 운동에 의한 스텝과 직선 운동에 의한 스텝으로 분류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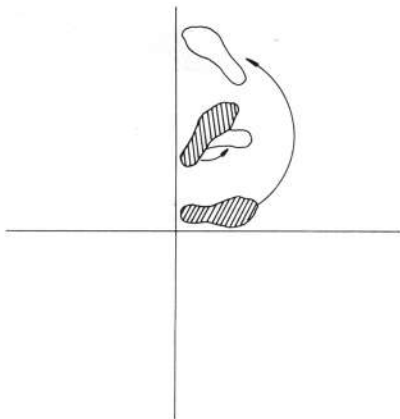
결국 태권도 경기에서 사용되는 발의 이동 형태에 따라 한 발을 고정하고 다른 한 발을 이동함으로써 밟게 되는 스텝과 두 발을 동시 또는 거의 동시에 이동 함으로써 밟게 되는 스텝으로 분류되며, 전자를 한발 스텝, 후자를 두발 스텝이라고 한다. 한발을 축으로 다른 한발을 이동함으로써 밟게 되는 스텝은 두발을 동시에 이동하여 밟는 스텝과의 구분을 위하여 일보나 앞발 또는 뒷발이라는 접두어를 이동 방향을 나타내는 용어와 결합하여 용어를 결정하였다. 반면, 두발을 동시에 이

동하여 밟게 되는 스텝은 움직임의 형태나 이동 방향을 나타내는 단어만으로 용어를 확정하였다. 한발 스텝은 축된 발을 중심으로 다른 한발이 어떻게 이동하느냐에 따라 다시 일보 전진 스텝, 일보 후진 스텝, 앞발 빠져 스텝, 앞발 밀어 스텝, 뒷발 끌어 스텝, 뒷발 옆 빠져 스텝으로 분류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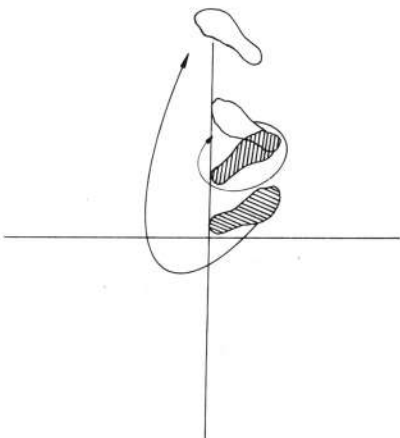
두 발 스텝은 두 발이 항상 함께 전후좌우로 이동 하거나 방향을 전환할 목적으로 밟게 되는 스텝이다. 두발 스텝은 두발이 동시에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이동 하느냐에 따라 다시 전진 스텝, 후진 스텝, 교차 스텝, 방향 바뀌 스텝, 그리고 사이드 스텝으로 분류된다. 사이드 스텝은 다시 이동 방향에 따라 바른쪽 옆으로 밟기 와 반대쪽 옆으로 밟기로 분류된다. 반대쪽 옆으로 밟기는 그것이 실제로 일어날 때 두 발이 서로 교차 되므로 엇갈려 밟기로 분류할 수도 있으나 두발 스텝의 분류 근거가 발의 이동 방향이므로 발의 형태상의 움직임이 교차의 형태를 나타내지만 결국 반대쪽 방향으로 이동할 목적으로 밟게 되는 스텝이므로 옆으로 밟기를 분류하는 것이 마땅하다.



1) 일보 전진 스텝(한발앞으로밟기)



① 앞측 일보 전진 스텝



② 뒤측 일보 전진 스텝

〈그림 1〉 일보 전진 스텝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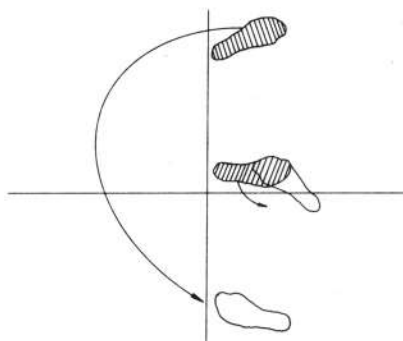
오른겨루기자세(왼발을 앞으로 한 겨루기 자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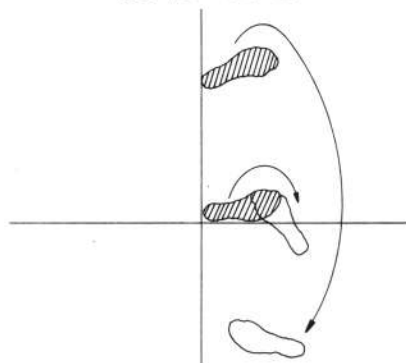
일보 전진 스텝은 앞발을 축으로 뒷발이 앞발의 곡선 운동하는 스텝으로서 앞축으로 회전하면서 이동하는 것을 앞측 일보 전진 스텝, 뒤로 회전하면서 이동하는 것을 뒤측 일보 전진 스텝이라고 한다. 앞발을 축으로 몸이 뒤로 180도 회전 하면서 밟는 일보 전진 스텝을 하나의 독립된 유형으로 이해하는 태권도 지도자들을 가끔 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몸이 회전하는 방향이 다를뿐 두 종류의 스텝 모두 일보 전진 스텝에 포함될 수 있다. 앞측 일보 전진 스텝이 일보 전진 스텝의 기본이 되며, 뒤측 일보 전진 스텝은 앞측 일보 전진 스텝보다 난이도가 다소 높은 동일 형태의 스텝으로서 몸의 회전 방향만 다를 뿐이다. 가끔 선수들이 일보 전진한 뒷발을 지면에 내려놓지 않고 앞발로 돌려차기 공격하는 것을 경기장에서 관찰할 수 있다. 그러한 스텝을 일보 전진 스텝에 포함시켜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만약 이것이 일보 전진 스텝에 포함될 수 있다면 그것을 “나라방” 등의 묘한 용어로 표현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즉, 지면에 발을 내려놓지 않고 신속한 회전을 이용하여 밟게 되는 공중축스텝은 난이도가 다른 일보 전진 스텝의 발전된 형태이다.

2) 일보 후진 스텝(한발뒤로밟기)

일보 후진 스텝은 뒷발을 축으로 앞발이 뒷발의 뒤로 곡선 운동하는 스텝으로 몸의 회전 방향에 따라 앞으로 일보 후진 스텝과 뒤로 일보 후진 스텝



① 앞측 일보 후진 스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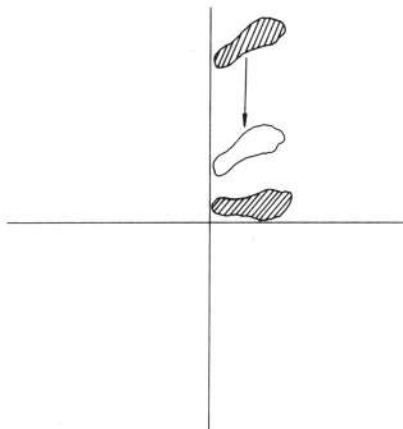


② 뒤측 일보 후진 스텝

〈그림 2〉 일보 후진 스텝

태프로 분리된다. 뒤측 일보 후진 스텝은 일보 후진 스텝의 기본이 되며 뒷발을 축으로 몸이 뒤쪽으로 180도 회전하며 앞측 일보 후진 스텝은 뒷발을 축으로 몸이 앞으로 180도 회전하여 밟는 스텝이다. 앞측 일보 후진 스텝은 뒤로 길게 빠져면서 뒤돌아 돌려차기를 할 때 밟게 되는 스텝으로서 뒤측 일보 후진 스텝을 어느 정도 숙달한 선수들

3) 앞발 빠져 스텝(앞발빠지며밟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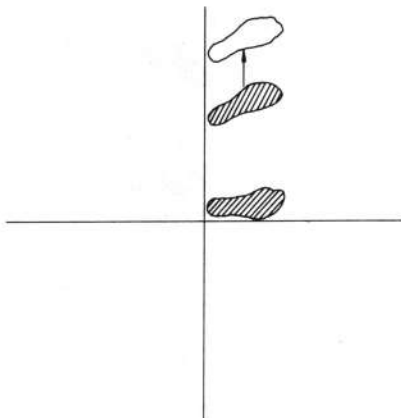


〈그림 3〉 앞발 빠져 스텝

이 학습하게 되는 스텝 유형이다.

뒷발을 축으로 뒷발 쪽으로 직선 이동하여 밟는 스텝을 말한다. 빠져면서 돌려차기를 할 때 자주 사용되는 스텝이다. 빠져 스텝은 지지발이 지지면을 갖느냐에 따라 지상 스텝과 공중 스텝으로 분류할 수도 있다.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빠져 스텝은 초보자들이 일반적으로 밟게 되는 스텝으로서 앞발이 뒷발의 위치로 이동하는 순간 돌려차기나 후려차기를 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공중 빠져 스텝은 일종의 빠른발 차기에서 사용되는 스텝으로서 앞발의 뒷발 위치로 이동과 돌려차기가 거의 동시에 일어나며 이 때 지지발은 공격이 완료될 때까지 채공 상태에 있으며, 차기의 수행이 끝남과 동시에 두발이 지면에 떨어지게 된다. 공중 빠져 스텝 역시 끝어 스텝의 한가지 형태로 분류해야 할 것인지 또는 차기 공격의 先動作으로 간주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더 논의 되어야 할 것이다.

4) 앞발 밀어 스텝(앞발밀며밟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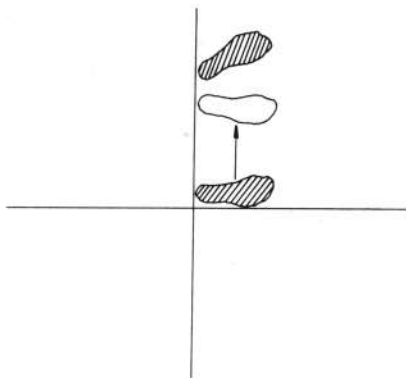


〈그림 4〉 앞발 밀어 스텝

밀어 스텝은 뒷발을 축으로 앞발이 짧게 직선운동하는 독특한 형태의 스텝을 말한다. 즉, 뒷발이 고정된 상태에서 앞발을 앞으로 밀어 이동하여 상대와의 거리를 조절하기 위해 주로 밟게 되는 스텝이다. 상대와의 거리가 일보 전진 스텝으로 접근하기에는 너무 가깝거나 미쳐 전진 스텝을 밟을 여유가 없을 때 앞발 만을 앞으로 약간 내민다음 공격할 때 주로 사용되는 스텝이다. 이 스텝은 가끔 상대를 페인트할 목적으로 사용 되기도 한다.

5) 뒷발 끌어 스텝(뒷발끌며밟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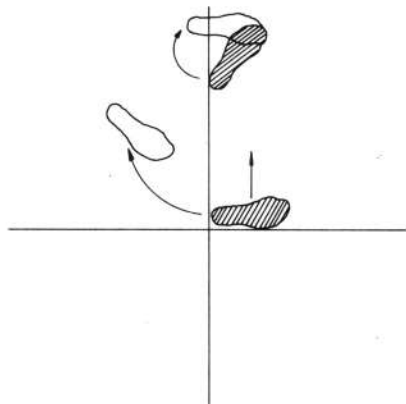
뒷발 끌어 스텝은 앞발을 축으로 뒷발이 앞발 쪽으로 직선 운동하는 스텝을 말한다. 뒷발이 앞발 넘어에까지 이동하게 되는 경우 그것은 축 스텝으로 간주된다. 끌어 스텝 역시 뒷발이 앞발의 위치로 이동한 다음 앞발로 차기 공격을 하는 경우와 뒷발이 앞발의 위치에 착지하기 전에 앞발로 차기 공격을 하는 경우의 두가지 형태가 있으며, 후자가 끌어 스텝의 기본이 된다. 후자 또는 공중



〈그림 5〉 뒷발 끌어 스텝

스텝은 뒷발을 앞발의 위치로 이동하면서 앞발로 공격하며 이 때 뒷발은 앞발 공격이 끝난 다음 착지하게 된다. 공중 스텝을 한발 끌어 스텝에 포함시켜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앞으로 떠 논의의 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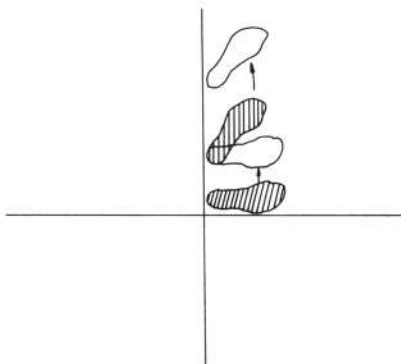
6) 뒷발 사이드 빠져 스텝(뒷발옆으로빠지며밟기)



〈그림 6〉 뒷발 사이드 빠져 스텝

뒷발 사이드 빠져 스텝은 오른 겨루기 자세에서 왼발을 축으로 오른쪽으로 45도 틀면서 밟게 되는 스텝이다. 상대의 공격이나 공격을 위한 예비 스텝으로 옆으로 피하거나 피한 다음 반격할 목적으로 밟게 되며 한발이 고정되고 다른 한발로서 스텝을 밟는다는 측면에서 바른쪽 사이드 스텝과 구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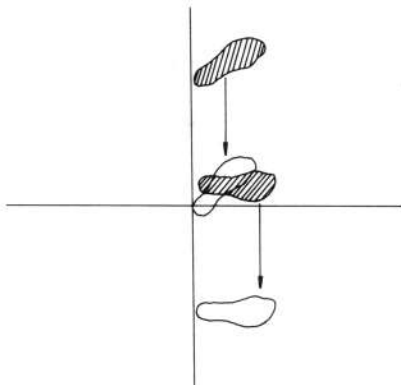
7) 전진 스텝(앞으로밟기)



〈그림 7〉 전진 스텝

두발을 동시에 또는 거의 동시에 밟으면서 앞으로 이동하는 스텝을 말한다. 전진 스텝은 두발이 동시 또는 거의 동시에 지면에서 떨어졌다가 다른 위치에 내려 놓음으로서 이루어지는 스텝이다. 전진 스텝은 두발의 위치 이동 시기에 따라 동시 전진 스텝, 끌어 전진 스텝, 밀어 전진 스텝으로 분류할 수 있다. 동시 전진 스텝은 전진 스텝의 기본이 되며 두발이 지면으로부터 동시에 떨어져 다른 위치로 이동하면서 밟게 되는 스텝을 말한다. 끌어 전진 스텝은 앞발이 뒷발보다 약간 먼저 이동한 다음 뒷발이 앞발을 따라 이동하는 경우이고, 밀어 전진 스텝은 뒷발이 앞발보다 약간 먼저 이동하면서 앞발을 앞으로 밀듯이 이동하며 밟는 스텝이다.

8) 후진 스텝(뒤로밟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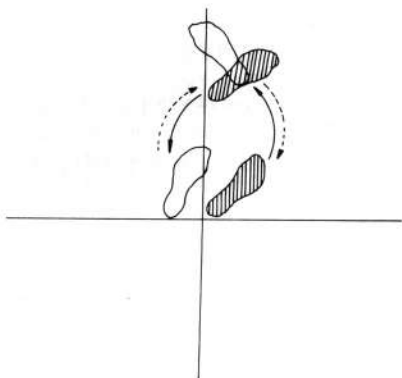


〈그림 8〉 후진 스텝

두발을 동시 또는 거의 동시에 뒤로 이동하면서 밟는 스텝을 말한다. 후진 스텝 역시 두발의 이동 시기에 따라 동시 후진 스텝, 빠져 후진 스텝, 밀어 후진 스텝으로 분류할 수 있다. 동시 후진 스텝은 후진 스텝의 기본이 되며 두발이 동시에 뒤로 이동하여 밟는 스텝을 말한다. 빠져 후진 스텝은 뒷발이 먼저 뒤로 이동한 다음 앞발을 끄는 스텝이고, 밀어 후진 스텝은 앞발이 먼저 뒤로 빠지면서 뒷발을 뒤로 밀면서 밟게 되는 스텝이다.

9) 교차 스텝(엇갈려밟기)

자세를 그대로 유지 하면서 제자리 또는 거의 제자리에서 앞뒤 발을 교차하여 밟는 스텝을 말한다. 축 스텝에 해당되는 일보 전진 스텝이나 일보 후진 스텝은 한 발을 축으로 다른 한발이 이동함으로써 두발이 교차되는 반면, 교차 스텝에서는 두발이 동시에 이동 하면서 두발이 교차하여 뒷발이 축이 되고 앞발이 차기 공격의 수단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교차 스텝은 이동없이 제자리에서 행해지는 교차와 앞 또는 뒤로 약간 이동 하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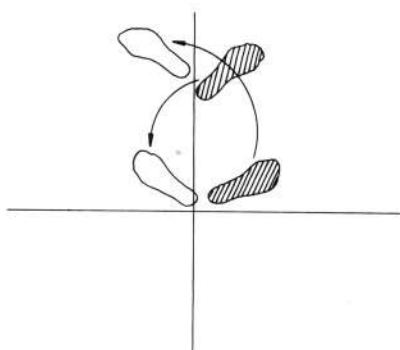


〈그림 9〉 교차 스텝

이루어지는 교차로 구분할 수 있다. 제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교차는 상대와의 적정 거리에서 뒷발에 의한 공격이 유효성이 없을 때 순간적으로 발을 교차 하면서 앞발로 공격하기 위해 밟게 되는 스텝이다. 두 선수 모두 원서기의 상태에서 앞발로 상대의 몸통이나 얼굴을 공격할 때, 또는 한 템포 늦춘 찌어차기를 할 때 자주 사용되는 스텝이다. 제자리에서 두발을 동시에 교차하는 것이 교차 스텝의 기본이 되고, 상대와의 적정 거리가 너무 멀고 앞발을 축으로 뒷발 공격이 유효하지 않을 때 상대 선수쪽으로 이동 하면서 밟게 되는 “앞으로 이동”, 공격해 들어오는 상대방부터 약간 빠지면서 두발을 동시에 교차하는 “뒤로 이동”의 스텝을 생각할 수 있다.

10) 발 바꿔 스텝(몸바꿔밟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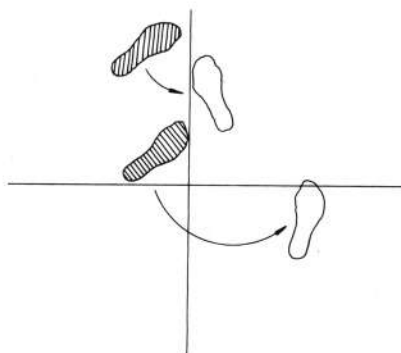
제자리에서 몸을 반대 방향으로 180도 회전 하면서 반대 자세를 취하기 위해 밟게 되는 스텝을 말한다. 자세 바꿔 스텝은 상대 선수가 자신있게 공격할 수 있는 공격 목표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 서 또는 자신의 공격에 적합한 자세를 얻기 위해서 주로 밟게 되는 스텝이다. 교차 스텝과 마찬가지로 제자리에서 180도 회전 하는 경우와 상대 선



〈그림 10〉 발 바꿔 스텝

수와의 거리를 고려하여 앞 또는 뒤로 약간 이동 하면서 밟는 스텝을 생각할 수 있다.

11) 바른쪽 사이드 스텝(바른쪽옆으로밟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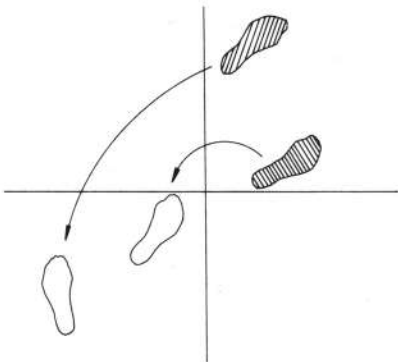


〈그림 11〉 바른쪽 사이드 스텝

두발을 동시 또는 거의 동시에 약간 뒤로 이동 하면서 밟는다는 점에서는 후진 스텝과 비슷하지만 뒤로 이동하는 대신 옆으로 이동하면서 밟는다는 측면에서 후진 스텝과 큰 차이가 있다. 바른쪽 사이드 스텝은 상대의 공격이나 공격 전의 전진

스텝을 옆으로 피하여 반격하거나 공격자세를 피할 목적으로 밟는 스텝이다. 후진 스텝과 마찬가지로 두발이 동시에 지면에서 떨어져서 이동하지만 두발의 이동 시기에 따라 동시 후진 스텝, 빠져 후진 스텝, 밀어 후진 스텝으로 분류할 수 있다. 동시 후진 스텝은 바른쪽 사이드 스텝의 기본으로서 두발이 동시에 지면에서 떨어져 옆으로 이동하면서 밟게 되는 스텝이다. 빠져 후진 스텝은 뒷발이 먼저 뒤로 이동한 다음 앞발을 끄는 경우이고, 밀어 후진 스텝은 앞발이 먼저 뒤로 빠지면서 뒷발을 뒤로 밀면서 밟는 스텝을 말한다.

12) 반대쪽 사이드 스텝(반대쪽옆으로밟기)



〈그림 12〉 반대쪽 사이드 스텝

반대쪽 사이드 스텝은 뒷발이 앞발의 위치로 이동하고 그것을 기점으로 앞발이 45도 뒤쪽 사이드로 빠지면서 밟는 스텝을 말한다. 이 때 선수는 처음과 반대되는 자세를 취하게 된다. 즉, 오른 겨루기 자세에서 왼 겨루기 자세로 바뀐다. 반대쪽 사이드 스텝은 두발이 동시에 교차하면서 자세가 바뀌므로 교차 스텝과 방향 바뀌 스텝이 동시

에 일어나는 스텝이라고 볼 수 있다. 상대의 공격을 옆으로 피하면서 적절한 자세로 다시 공격하는데 적합한 스텝이다.

태권도의 스텝은 이처럼 12가지 기본 스텝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러한 12가지 기본 스텝과 그것에서 확대된 스텝들을 다양하게 결합한 복합 스텝들이 개발될 수 있다.

V. 결 어

지식(knowledge)이란 높은 질의 정보(information)가 개별 및 집단적 의미를 제공하는 체계로 통합될 때 비로소 유익하게 작용한다. 비록 지식의 개념이 개인에 따라 약간씩 다를 지라도 거의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일반화된 규칙들이 있다. 일반적으로 지식의 상태는 정보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테스트를 통과할 때 보장된다. ① 정확에 관한 진실 테스트 ② 구체적인 사람과 상황에의 적용 가능성에 관한 관계 테스트 ③ 실제적인 교수 연습에서의 사용 가치에 관한 유용성 테스트. 지식이 단순한 정보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논리적인 순서에 따라 질서있게 체계화 되어야 한다. 태권도 스텝에 관한 많은 흩어진 개별적 정보는 있으며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서 일반화된 보편적 지식은 없는 듯 하다. 태권도가 하나의 학문으로서 인정 받기 위해서는 흩어진 개별적 정보들의 체계화는 더없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과연 태권도 경기에 관한 지식체계가 있는가? 이러한 질문은 태권도의 내용 지식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연구자들 실천가들의 핵심 과제가 되어야 한다. 아직 기초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지만 이러한 체계적인 설명적 틀 위에서 태권도에 관한 정보들이 질서있게 체계화 되길 바라면서 보다 완전한 분류 체계의 도출을 위한 독자들의 관심을 기대한다.

태권도 위생 품새에 관한 연구 (고려 품새를 중심으로)

- 82, 83호에 이어 마지막회 -

V. 위생 고려품새의 연공실제

지금까지의 설명한 위생 품새의 조신, 조심, 조식원리를 참조하여 연공을 하게 되는데, 기존에 수련하고 있는 품새와는 달리(격파나 공·방의 목적이 아닌) 호흡의 정돈을 통하여 조신하고 조심하게 된다. 호흡의 정돈이란 호기시와 흡기시에 너무 많이 들이쉴드나 너무 의식적으로 힘을 주어 심하게 내쉬는 것이 아니라 무리가 안가게 자연스럽게 호흡하고 정신집중은 하단전에 위치하는 것을 말하는데 위생품새의 유의점은 호흡에 있다. 호흡은 허끝을 턱끝에 붙이고 자연스럽고 길고 부드럽게,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하는데 만약 연공시 복부가 답답할 때는 흉식호흡을 한번 해주고 다시 연공하는 것이 좋다.

따라서 위생 태권도를 연공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약 1개월 정도는 호흡법을 익히고 연공에 들어가야 한다. 물론 본래 태권도를 수련해 온 사람은 짧은 시간에 감각을 느끼게 되어 위생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특히 고혈압인 사람은 호기를 길게 유도하여 내쉬는 시간을 오래 지속할 수 있도록 주의하고, 저혈압인 사람은 흡기시에 시간을 오래 지속할 수 있도록 주의한다.

조식을 할 때 주의할 점은 일반 품새수련처럼 힘을 주어 각 관절마다에 무리한 힘을 가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발을 들어 올릴 때 신체 균형이 흐트러져 호흡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며 마찬가지로 발차기 또한 무리한 힘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 유연하고 소리없는 동작을 구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조심은 도장의 분위기가 엄숙 단정해야 하며 자연의 향기로움을 맛보고 평온한 가운데 정신을 하단전에 집중시키고 도복을 입는 순간부터 모든 격정과 잡념을 버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지금부터 미흡하나마 필자가 연구한 위생고려품새의 동작을 설명하겠다.(품새의 진행은 기존의 품새진행과 같다.⁵⁷⁾)

하 태 은/ 경희대 태권도학과·단국대 대학원
졸업·현 육군 대위

① 준비(통일기)

●신: 시선은 전방 먼 곳의 한 점을 주시하고 두손을 올릴 때 가슴을 벌리고 밀 때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한다.

●심: 의식은 단중(가슴 양쪽 유두를 연결한 선의 한가운데)에 집중하고, 정신을 통일하며, 온몸을 이완시키고 잡념을 없앤다.

●식: 동작과 밀접한 배합을 시키는 흡식호흡으로 방법은 비흡구호법(코로 흡하고 입과 치아를 가볍게 벌리고 혀를 내리며 천천히 숨을 내린다.)

② (원·오른)손날 몸통막기 동작(1, 5)

●신: 시선은 두손을 향하여 같이 이동하고 두발도 같은 방향으로 틀어준다. 이때 주의할 점은 막는 손의 어깨에 너무 힘을 주고 뒤로 꺾지 않도록 해야하며 발의 이동은 지면을 살짝 스치며 서서히 이동시켜 허리부분의 제어를 방지해야 한다.

●심: 생각은 기가 단전에서 팔과 양수로 유도시켜 준다(의수양수적모개부위)

●식: 복식호흡법중 순호흡법을 사용한다. 막을 때(두손을 뒤로 젖힐때)흡하고 막을때(앞으로 막는 동작)에 호한다.

③ (원·오른)발 아래와 몸통 옆차고, 엷은 손날 바깥치기와 주먹 몸통 바로 지르기 동작(2, 3, 6, 7)

●신: 시선은 차는 발을 향하고 허리는 너무 뒤로 꺾지않고 골반은 자연스럽게 틀리 제어가 되지않게 주의하고 차는 발의 연결은 다소 빠르고 부드럽게 발끝을 뿌리지 않게 주의하여 찬다. 손날목 바깥치기와 주먹 몸통찌르기시 주의할 점은 지르고, 치기시 어깨와 허리의 제어가 되지않게 약간 틀어(허리)준다는 점에 주의한다.

●심: 엷은 손날 바깥치기와 주먹몸통 바로지르기 는 의수일수적모개부위에 두고, 옆차기(하·중단)는 의수각보적모개부위에 둔다.

●식: 복식호흡 중 흡-정-호식 방법을 이용하여 옆차기 전에 이동하면서 흡하고 정지한 후 옆차기를 한다. 그리고 엷은 손날 바깥치기와 주먹 몸통 바로지르기에 두번 나누어 숨을 내린다. 흡-정-호식법

④ (원·오른)팔목 몸통안막기 동작(4, 8)

●신: 앞발을 살며시 끌어막되 힘을 주기 위하여 몸을 바깥으로 틀어 허리가 제어되지 않도록 앞을 보고 손은 너무 바깥쪽으로 나가지 않게 하여 막는다. 이때 허리와 발은 같이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돌리고 시선은 팔목을 향한다.

●심: 의수일수적모개부위에 둔다.

●식: 복식호흡법중 순호흡을 한다. 발을 당길 때 흡하고 팔목으로 막을때 호한다.

⑤ (원·오른)손날 아래막고 칼재비 동작(9, 9-1, 10-1, 10-2, 11-1, 11-2)

●신: 시선은 손에 두고 허리를 틀어 막기 동작을 하되 동작은 크고 앞발과 평행하게 손을 위에서 힘을 조절하며 내려 막는다. 이때 주의할 점은 칼재비시 손끝에 무리한 힘을 빼고 팔목은 약간 굴절시켜 관절의 무리를 없앤다.

●심: 기를 양팔로 내리는 기분을 갖는다. 의수일수적모개부위에 둔다.

●식: 복식호흡법 중 순호흡을 하며 내려막기전에 어깨위로 올리며 흡하고 내려막으면서 호한다.

⑥ (원·오른)발 앞차기 동작(10, 11, 12, 14)

●신: 격파가 목적이 아니므로 천천히 접어서 호흡에 유의하여 올리도록 하고 내리는 속도도 같이 하되 무리가 안가게 주의한다.

●심: 의수각보모개부위에 둔다.

●식: 흡-정-호식법으로 차기전에 흡하고 멈춘후 다음 동작에 호한다.

⑦ (원·오른)손날겨드랑이로 끌며 앞뒤손 무릎격기 동작(12-1, 14-1)

●신: 천천히 동작을 취하며 몸의 기가 가라앉는 기분을 갖게 자세를 낮추고 꺾는 손은 조절시킨다.

●심: 평온하게 기를 상·하강시키는 기분을 느낀다. 의수양수적모개부위에 둔다.

●식: 복식호흡법중 순호흡법 사용한다.

⑧ 안 팔목 몸통헤쳐막기 동작(13, 15)

●신: 양팔을 안에서 밖으로 천천히 뻗으며 단중의 기를 내뿜는 자세를 취한다.

●심: 기가 단중에서 밖으로 교차되어 나가는

기분을 느끼며 의식을 단중에 둔다.

- 식: 돌며 호흡하고 양손으로 막을때 호한다. 흡식·호흡법중 순호흡법을 사용한다.

⑨ (원·오른)한 손날 몸통막기 동작(16, 21)

- 신: 돌며 중심을 잘 잡고 양발은 상대방으로 약간(15도) 돌려 허리와 양손은 막는 쪽의 어깨 부위에 기의 윤행을 제어하지 않게 돌리고 손은 밖으로 꺼지 않도록 주의한다.

- 심: 손을 통해 기를 윤행시킨다는 마음을 갖는다. 의수적모개부위에 둔다.

- 식: 돌며 막을때 흡한다.

⑩ (원·오른손)주먹 표적치기 동작(17, 23)

- 신: 동작(16, 21)의 발동작 그대로에서 주먹만 뺀데 너무 힘을 쓰지말고 팔꿈치를 굴절시킨다.

- 심: 의수양수적모개부위에 둔다.

- 식: 주먹을 뺄으면서 호한다.

⑪ 꼬아서기 후(원·오른발)옆차기 동작(18, 22)

- 신: 꼬아서기를 유연하게 하면서 중심을 잡고 허리와 골반의 힘을 빼고 제어를 방지한다.

- 심: 의수각보적모개부위에 둔다.

- 식: 꼬아서기 하면서 흡하고 멈춘다. 흡-정-호법을 사용

⑫ (원·오른)손바닥 아래 뺄고 손바닥 어깨쪽 편손끝 제쳐 찌르며 팔목 아래막기 동작(18-1, 19, 23-1, 24)

- 신: 동작(18-1, 23-1)은 빠른 동작으로 하되 허리를 앞으로 약간 자연스럽게 숙인다. 일반 품새처럼 허리를 펴므로써 막는 손의 어깨가 제어됨을 주의한다. 다음은 천천히 허리를 바로하며 내려 막는다. 이때 주의 할점은 팔목을 굴절시킨다.

- 심: 의수양수적모개부위에 둔다.

- 식: 동작(18-1, 23-1)에서는 계속 숨을 멈추고 동작(19, 24)에서 흡하되 천천히 길게 내쉬도록 한다.

⑬ (원·오른)손바닥 눌러막고 다시 팔굽 옆치기 동작(20, 20-1, 25, 25-1)

- 신: 동작(20, 25)는 자연스럽게 발을 내딛고

막으며 허리를 돌려 팔굽 옆치기를 하되 너무 힘을 주거나 어깨가 몸 밖으로 나가 어깨가 제어되지 않게 주의한다.

- 심: 의수일수적모개부위에 둔다.

- 식: 동작(20, 25)에서 흡하고 동작(20-1, 25-1)에서 호한다.

⑭ 두손 양옆으로 벌린후 원 매주먹 오른 손바닥에 모으기 동작(26, 26-1)

- 신: 천천히 발을 모으며 양손을 위에서 옆으로 내리고 동작(26-1)까지 취하되 팔꿈치를 쭉 펴고 팔을 회전시에 양쪽 귀를 스치도록 바깥 돌린다. 시선은 전방을 주시.

- 심: 몸내·외의 기를 바꾼다는 기분을 갖고 몸을 이완시키며 기를 단전에서 양팔과 손으로 유도한다. 의수양수적모개부위에 둔다.

- 식: 양손이 어깨까지 내려올 때 흡하고 원 매주먹 칠 때 서서히 호한다.

⑮ 원 한손날 바깥치고 원 손날 아래막기 동작(27, 27-1)

- 신: 시선은 손을 따라 이동하고 손을 펴고 어깨회전을 크게한다.

- 심: 의수일수적모개부위에 둔다.

- 식: 동작(27)에 흡하고 동작(27-1)에서 호한다.

⑯ (원·오른) 한손날 목 안치고 아래막기. 동작(28, 28-1, 29, 29-1)

- 신: 시선은 손을 따라 이동하고 동작을 크게 한다.

- 심: 의수일수적모개부위에 둔다.

- 식: 동작(28, 29)에서 흡하고 동작(28-1, 29-1)에서 호한다.

⑰ 오른 칼채비 동작(30)

- 신: 단전에서부터 목 높이까지 서서히 손바닥에 집중하여 밀어준다. 이때 일반품새처럼 기합은 주지 않는다. 그리고 어깨를 약간 틀어주고 팔굽은 약간 굴절시키며 시선은 상단전에서부터 목 높이까지 따라 이동한다.

- 심: 상단전에 기를 올린다는 기분을 갖는다. 의수일수모개부위에 둔다.

• 식: 천천히 흡하면서 기를 끌어 올린다.

⑬ 바로(동작은 준비자세)

• 신: 동작(30)에 이어 돌면서 통일기를 한다.

• 심: 사기를 밖으로 뻗는다는 기분을 갖는다.

의수양수적도개부위에 둔다.

• 식: 입으로 기를 뿜어 낸다.

이와같은 위생품새는 1일에 3~4회씩 반복하고 30분에서 1시간 정도씩 아침 기상후나 저녁 취침 전에 실시하고 점심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것이 좋다. 단 수련의 강도는 사람마다 틀리다는 것을 주의한다.

VI. 결 론

우리 고유의 전통 태권도는 수박이라는 원시적 신체활동을 시작으로 『심심일여』를 피하여 우주론과 인체론의 하나라는 『한』 사상을 중심으로 『심심일원론』 즉, 『이기일원론』이라는 철학과 양

생이라는 의학적 위생의 태권도신체사상을 갖고 있다.

태권도는 이러한 태권도신체사상을 갖고 동의보감 등에 실려있는 양생술을 근거로 발전되어 현대에 이르러 품새를 통하여 연공을 실시함으로써 일반적인 신체단련을 위한 형이라기 보다는 위생의 원리를 터득하게 되었던 것이다.

태권도위생품새란 위생품새의 연공을 통하여 건강의 보존과 증진을 도모하고, 질병의 처방과 치료에 힘쓰는 행공인데, 이러한 위생품새를 위하여 기와 품새를 접목시킨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위생품새는 태권도신체사상을 근거로 심신의 연공을 하는 종합 예술이다.

2. 태권도품새에 기를 접목시킴으로써 위생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3. 학교체육에서 보다 발전된 생활체육으로 활성화될 수 있다.

- 1) 라현성: 한국체육사, 청운출판사, 1953
- 2) 이희승: 국어대사전, 민중서림, 1991
- 3) 이연적: 회재집권 13, 관서문답목, 인환도회조
- 4) 이진수: 조선조주자학과 건강체육사상성립에 관한일고제, 동국대스포츠학과 연구 논문집 1집, 1983
- 5) 이부영: 동의보감에 나타난 심신관계, 서울의과대학 신경정신의학, 1977
- 6) 김 철: 2000년대 태권도발전방안에 대한 모색, 태권도 연구논문제 1호, 1988
- 7) 하태은: 한국전통사상과 태권도정신에 관한 연구, 단국대 석사논문, 1991
- 8) 김정지의 2명: 태권도의 이론과 실제, 형설출판사, 1986
- 9) 육군사관학교: 무도교본, 형설출판사, 1985
- 10) 최홍희: 태권도지침, 정인사, 1966
- 11) Whang Kee: DangSooDo, SungMoonSa, 1977
- 12) 하태은: 유학의 전통사상과 태권도정신에 관한고고, 태권도계간지, 제 7호, 1991
- 13) 이 이: 연속전서십귀 6이제 3의약책
- 14) 이희대: 퇴계선생의 수직환원신법, 퇴계학보, 1976
- 15) 심동원: 노화과정, 대한의학협회지, 제 32 권 제 1호, 1989
- 16) 강무희: 생리학, 신광출판사, 1983
- 17) 윤길영: 동의학의 방법론연구, 성보사, 1983
- 18) 김상호: 동의신경신과학, 행림사, 1983
- 19) 공원직: 정교찰제대경, 동의학연구원, 1981
- 20) 허준, 동의보감, 남사당, 1989
- 21) 馬元堂, 張隆庵: 黃帝內經, 中國, 태원국풍사, 1977
- 22) 이부영: 동양의학의 기개념에 관한 고찰, 서울의과대학 정신과학교실, 신경정신의학, 1978
- 23) 이형구: 동의배개내과학, 서울, 민서, 1986
- 24) 김진제: 동양의학개론, 서울, 동양의학연구원 출판부, 1981
- 25) 김영훈: 청강의감, 서울, 성보사, 1984
- 26) 藤原知의 1명: 경각의 대발견, 서울, 일월서각, 1986
- 27) 최용태, 이수호: 정신침구학, 서울, 행림출판사, 1974
- 28) 呂光榮: 中國氣功辭典, 中國, 人民衛生出版社, 1989
- 29) 葉文楠: 中國式南文化概論, 中國, 四川教育出版社, 1989
- 30) 馬濟人: 中國氣功學, 中國圖書刊行社, 1985
- 31) 王寅: 氣功外氣療法, 中國, 山西科學教育出版社, 1988
- 32) 문명상, 우영관: 고령환자의 정형외과적치료, 대한의학협회지, 제 32 권 제 1호, 1989
- 33) 박종환: 고령환자의 신경정신과적 치료, 대한의학협회지, 제 32 권 제 1호, 1989
- 34) 錢存澤: 氣功原理與應用, 上海, 交通文學出版社, 1989
- 35) 이태영: 요가의 Citta-vrtti-niradha의 철학적 구조에 관한 연구, 동국대논문, 1984
- 36) 차영애: SAMKHYA-YOGA철학의 전변성과 요가수행, 동국대논문, 1981
- 37) 임준규: 중국기공, 서울, 보진신문사, 1987
- 38) 김경탁: 열자, 서울, 삼경당, 1985
- 39) 이연영: 건강비결, 서울, 의문사, 1977
- 40) 고경민: 국산도, 서울, 종로출판사, 1974
- 41) 呂光榮 劉禁玉: 氣功學基礎, 中國, 人民衛生出版社, 1989
- 42) 김석련: 수련생을 위한 태권도교본, 오성출판사, 1992

행 사 기 록

2 단 자 승 단

92년도 제 4차 고단자 (6, 7, 8, 9단)심사대회 합격자명단 (92.12.5. 국기원)

(6 단)

- ▲ 서울 : 안용근 정창호 이주용
강익필 국승철 신동수
박은수 이용영 신성환
이상기 곽충섭 고동성
이필호 유주환 최주수
김현수 백희열 권태진
김기전

- ▲ 부산 : 하정호 이수관

- ▲ 대구 :

- ▲ 인천 : 김하선 전순재

- ▲ 광주 : 박성택 송지용

- ▲ 대전 : 임연우

- ▲ 경기 : 김덕은 이명수 김화선

- ▲ 강원 : 정영규 정정환 이재기

- ▲ 충남 : 김낙중 양명복

- ▲ 경남 : 이 철 조금용 박명철
한규학 장기복

- ▲ 경북 : 황헌섭

- ▲ 전남 : 김선남 양희락 최석규
주석주

- ▲ 전북 : 이정학

- ▲ 제주 : 최철영 양동언

- ▲ 국태부 : 권태홍 장기홍
(7 단)

- ▲ 서울 : 최정호 장길태 유상철
곽종철

- ▲ 인천 : 이상신

- ▲ 대전 : 박호원

- ▲ 경기 : 안영고

- ▲ 경남 : 황일휴 김광조 김한춘
이강조 이춘식 박송운

- ▲ 전남 : 박세송
(8 단)

- ▲ 서울 : 김명수 정해주 김형빈

- ▲ 부산 : 이인수

- ▲ 대구 : 김철만

- ▲ 경기 : 채한석

- ▲ 경남 : 박갑문 한창열

'93 상임심판원 명단

- 고국환 맹만호 박덕규 이규현
김강인 조호철 유문규 박종명
조한우 장용갑 김기용 최돈오
박경선 유백만 이종관 박종률
노달선 한상진 김경찬 이종찬

- | | | | |
|-----|-----|-----|-----|
| 양주호 | 김현성 | 최봉호 | 이천수 |
| 김명환 | 박홍신 | 안태연 | 이종근 |
| 김원기 | 장세백 | 장명수 | 송우길 |
| 김광현 | 장창영 | 김현수 | 김경호 |
| 이규섭 | 김병숙 | 이봉학 | 정정식 |
| 최정호 | 진용호 | 민준원 | 이규중 |
| 홍연화 | 박정옥 | 양인옥 | 이정연 |
| 오수곤 | 박광일 | 김갑식 | 김영현 |
| 김혜연 | 최복현 | 이성용 | 선우진 |
| 강석한 | 나창흠 | 문찬석 | 김영태 |
| 양천석 | 이만우 | 서영애 | 장수영 |
| 김복녀 | 차정훈 | 김대연 | 심명구 |
| 김영철 | 홍진국 | | |

국 내 대회

93년도 국가대표 1차 선발대회 (3.2~5, 올림픽제2체육관)

(남자부)

▲ 편급

- 1위 : 소병관(경희대)
- 2위 : 석운용(용인대)
- 3위 : 강성일(청주대)
- 윤종일(동아대)

▲ 플라이급

- 1위 : 유성호(용인대)
- 2위 : 조재성(경희대)
- 3위 : 고동완(한체대)
- 김진일(계명대)

▲ 밴텀급

- 1위 : 장대순(한체대)
- 2위 : 함 준(전북협회)
- 3위 : 김인경(한체대)
- 이종현(국군체육부대)

▲ 페더급

- 1위 : 민경환(청주대)
- 2위 : 이안호(경희대)
- 3위 : 이두상(국군체육부대)
- 김정호(경희대)

▲ 라이트급

- 1위 : 박의성(한체대)
- 2위 : 강재구(계명대)
- 3위 : 김경훈(동성고)
- 신경수(청주대)

▲ 웰터급

- 1위 : 김광수(한체대)
- 2위 : 김동민(한체대)
- 3위 : 최정복(경희대)
- 황혁모(단국대)

▲ 미들급

- 1위 : 정주석(국군체육부대)
- 2위 : 정용국(동아대)
- 3위 : 김정규(경희대)
- 강병삼(한체대)

▲ 헤비급

- 1위 : 김형태(조선대)
- 2위 : 박형래(용인대)
- 3위 : 이광섭(청주대)
- 서현석(단국대)

(여자부)

▲ 핀급

- 1위 : 유수진(경희대)

2위 : 강선경(상명여대)

3위 : 박은경(김제상고)

양소희(천안여고)

▲ 플라이급

1위 : 이경수(중부산업대)

2위 : 서명숙(천안여고)

3위 : 이은옥(천안여고)

서미라(용인대)

▲ 밴텀급

1위 : 함진희(리라공고)

2위 : 김병희(은광여고)

3위 : 김은숙(용인대)

이경민(시온고)

▲ 페더급

1위 : 신동선(성신여대)

2위 : 윤 희(한체대)

3위 : 차춘희(동명전대)

윤명숙(상명여대)

▲ 라이트급

1위 : 김혜선(용인대)

2위 : 진혜윤(경희대)

3위 : 강해은(경성여실)

김옥남(배성여상)

▲ 웰터급

1위 : 조항미(경희대)

2위 : 정윤경(상명여대)

3위 : 박선미(상명여대)

정연옥(중부산업대)

▲ 미들급

1위 : 박은선(고양여고)

2위 : 김은주(한체대)

3위 : 송지수(인천체대)

고내인(동명전대)

▲ 헤비급

1위 : 장 철(경희대)

2위 : 백현정(중부산업대)

3위 : 김태희(성신여대)

김윤경(경성여고)

93년도 국가대표 2차 선발대회 (3.9~11, 올림픽제2체육관)

(남자부)

▲ 핀급

1위 : 최용훈(동아대)

2위 : 이대훈(용인대)

3위 : 김홍일(충남대)

장경호(승실고)

▲ 플라이급

1위 : 이화진(국군체육부대)

2위 : 박재완(경상대)

3위 : 여원재(계명대)

배상철(지하철공사)

▲ 밴텀급

1위 : 이지철(용인대)

2위 : 김인경(한체대)

3위 : 이강희(단국대)

성대중(한체대)

▲ 페더급

1위 : 김정호(경희대)

2위 : 장영근(송곡고)

3위 : 손효봉(충남대)

김동현(동성고)

▲ 라이트급

1위 : 정을진(경희대)

2위 : 박세진(경희대)

3위 : 천일구(경상대)

성의천(국군체육부대)

▲ 웰터급

1위 : 박종상(금강체육관)

2위 : 최정복(경희대)

3위 : 정우용(경원대)

양원철(청주대)

▲ 미들급

1위 : 김정규(경희대)

2위 : 장우화(용인대)

3위: 최승길(용인대)
장형철(용인대)

▲ 해비급

1위: 안성주(충남대)
2위: 서현석(단국대)
3위: 김상국(경상대)
이광섭(청주대)

(여자부)

▲ 편급

1위: 양소희(천안여고)
2위: 박은경(김제상고)
3위: 이인정(중부산업대)
강선미(부평여상)

▲ 플라이급

1위: 서미라(용인대)
2위: 최재숙(송곡고)

3위: 유미란(부평여상)
조미라(광명상고)

▲ 밴텀급

1위: 김은숙(용인대)
2위: 이선영(송곡고)
3위: 전기숙(부평여상)
홍지선(인천전대)

▲ 페더급

1위: 양은정(성신여대)
2위: 김경애(용인대)
3위: 김미선(인천전대)
윤명숙(상명여대)

▲ 라이트급

1위: 김옥남(배성여상)
2위: 강해은(경성여실)
3위: 조미례(리라공고)

김은이(경희대)

▲ 웰터급

1위: 이영미(성신여대)
2위: 신경숙(인천체전)
3위: 정미화(김제북고)
박선미(상명여대)

▲ 미들급

1위: 이은주(성신여대)
2위: 이종월(중부산업대)
3위: 이영혜(인천체고)
송지수(인천체고)

▲ 헤비급

1위: 김윤경(경성여고)
2위: 김태희(성신여대)
3위: 박은주(상명여대)
신혜진(상명여대)

93년 4~6월

행사안내

▲ 4월 1일~3일: 충남협회 심판
강습회(대전시 150명예상)

▲ 4월 10일~16일: '93 전국 중
별선수권대회(고등부)<올림
픽제 2체육관>

▲ 4월 15일~5월 4일: 제17기 2급
경기지도자연수과정<국기원>

▲ 4월 20일~22일: 전남협회 심
판강습회<전남체육회관내 태
권도훈련장>

▲ 4월 22일~24일: 20회 대학
연맹 개인대회<국기원>

▲ 4월 28일~30일: '93 전국 중
별선수권대회(중등, 일반부)
<국기원>

▲ 5월 1일~4일: 제3회 용인대
총장기대회<국기원>

▲ 5월 11일~16일: 제20회 중
교연맹회장기대회<잠실학생
체육관>

▲ 5월 19일~20일: '93년도 전국
여자개인선수권대회<국기원>

▲ 5월 28일~31일: 제22회 전
국소년체육대회<경기도>

▲ 6월 1일~5일: 제28회 대통령
기 전국단체 대항 대회<장소
미정>

▲ 6월 16일~29일: 제75기 사
범교육 및 3급 생활체육지도
자연수<국기원>

▲ 6월 19일: 2차 고단자(6~9
단)승단심사대회<국기원>

▲ 6월 28일~30일: 제5회 경희대
총장기대회<수원실내체육관>

93년도 정기 대의원 총회 개최

93. 1. 14, 올림픽회관

대한태권도협회는 1월 14일 올림픽회관 1층 중회의실에서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생활체육대회의 확산 추진, 국내경기대회의 질서확립 및 세계선수권대회의 제패, 중국 및 베트남 등 사회주의 국가와의 태권도 교류 확대, 내실경영체제확립 등을 올해 중심적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9억 9천 7백만원의 예산을 통과시켰다.

또한 임원 선출에서는 최세창회장을 16대 회장으로 재선출하고 송봉섭, 조영기 감사를 유임시켰다.



▲총회를 마치고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리셉션에 참석한 최세창회장은 재선임해 준것을 감사하고, 태권도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피력했다.



▶ 시도지부 및 연맹의 대의원들이 안건을 토의하고 있다.

93년도 1차 이사회 개최

93. 2. 10, 국방회관

대한태권도협회는 93년도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최세창 회장을 16대 회장으로 선출한데 이어 신집행부를 구성하고 상견례를 겸한 이사회를 개최했다.



◀ 최세창회장은 앞으로 4년간 태권도계를 이끌어갈 집행부 임원들에게 강력한 지원과 동참을 부탁했다.

▼ 신임 이사들과 인사를 나누는 최세창회장



김운용 IOC 부위원장, 대한체육회장, KOC 위원장 취임

93. 2. 23, 올림픽회관

김운용 전대한태권도협회장(현 IOC 부위원장, WTF 총재, 국기원원장)이 2월 23일 올림픽회관 1층 대회의실에서 41개 가맹단체 대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93년도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제31대 대한체육회장으로 선출됐다.

앞으로 4년간 한국체육계를 이끌어갈 김운용회장은 한국체육의 발전과 위상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취임소감을 밝혔다.



◀ 31대 대한체육회장으로 취임한 김운용회장



▶ 신임 김운용회장의 손을 들어 당선을 축하해주는 김종렬전회장.

93년도 대한태권도협회 표창 수여식

93. 2. 18, 올림픽회관 대회의실

협회는 우수도장상, 지도상, 우수선수상 등 3개 부문의 수상자 52명에게 표창장과 훈장을 수여하고 이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태권도 최고의 영예”



▲ 92년도 각종 국내외 대회에서 우수한 가량을 발휘한 우수선수들에게 수여한 우수선수상 수상자에게 표창장과 훈장을 수여하며 격려하는 김종식 부회장(현 국군체육부대장)



◀ 생활체육유공자들에게 수여된 우수도장상 수상자(위), 탁월한 지도능력을 발휘한 지도상 수상자들(아래)과 자리를 함께한 태권도계 임원들.

93년도 국가대표 선발대회 개최

국가대표 최종선발대회를 앞두고 최종전 진출자를 가
리기 위한 1차(3.2-6) 및 2차(3.9-11) 대회가 올림픽
제2체육관에서 거행되었다.

체급별 12위자들은 국가대표 최종선발대회(3.20-31,
서울체고)에 출전하여 92년도 국가대표 12위자, 92년
도 우수선수선발대회 12위자들과 함께 태극마스크를 늘
고 헌관의 결전을 펼쳤다.





기술심의회 임원 임명장 수여식

93. 2. 18, 올림픽회관

93년도 각종 사업을 실행업무를 담당하게될 기술심의회 임원이 선임되었다.

김인석의장을 사령탑으로한 기술심의회 의장단 및 11개 분과위원회 임원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이 2월 18일 올림픽회관 1층 대회의실에서 있었다.

▶ 김인석 기술심의회 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홍종수부회장.



▼ 임명장을 받은 기술심의회 임원들.



93년도 장학생 36명선발

93. 2. 18, 올림픽회관

대한태권도협회는 태권도를 전공하고 있는 경희대와
웅인대 태권도학과 성적 우수자 및 국내외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올리며 국위를 선양한 중고등학교 학생
등 36명의 장학생을 선발하고 총 7백만원의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수여했다.



◀ 장학생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하는
강원식 전무이사



▼ 대한태권도협회 임원들과 자리를
함께한 장학생들.

'93경기규칙 강습회실시

협회는 각팀의 코치와감독,
심판자격소지자를 대상으로한 '93경기규칙강습회를
2월 5일과 11일, 2차례에걸쳐
올림픽회관 1층 대강당
에서 실시했다.



상임심판원 70명 임명

경기장내 판정시비를 없애고 심판부의 신뢰회복을 위
해 90년도부터 상임심판원제를 운영하고 있는 협회는
전국의 5664명의 심판자격 소지자 중 93년도 상임심
판원으로 70명을 선발하고 이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
다.



▲ 심판자격 소지자들을 대상으로한 경기규칙강습회가 2월 11일과 12일 이틀간 실시되었다. 협회는 강습회 수료생
중 70명을 상임심판원으로 임명하고 이들에 대한 별도의 교육을 2월 19일 한국체육대학 태권도장에서 실시하였
다.